

2010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10. 6. 25(금)
-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강당
- 주제 :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방안
- 주최 : 통일부 통일교육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주제 :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방안
- 일시 : 2010. 6. 25(금), 14:00~17:00
-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강당

□ 워크숍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	30분	○ 등록	▶ 대전광역시교육청
14:30-14:40	10분	○ 개회 및 국민의례 ○ 인사말(통일교육원) ○ 축사(대전광역시교육청)	▶ 진행 : 대전광역시교육청
14:40-15:30	50분	○ 특강 - 정부의 대북정책과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 통일교육원 - 이미경 교수
15:30-15:40	10분	○ 휴식	
15:40-17:00	80분	○ 워크숍 - 발제 I, 발제 II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 윤수진 교장(대전변동중) ▶ 발표자 - 최인화(유성중 교장) - 이종석(대전관저중 교사) ▶ 토론자 - 이병각(대전용전초 교사) - 최현호(대전둔산중 교사) - 김학추(서대전고 수석교사)
17:00		○ 폐회	
18:00-20:00	120분	○ 교육청 관계자, 발표· 토론자 등과 만찬	▶ 통일교육원

목 차

1. 특강자료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7
이 미 경(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2. 발제자료 I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진단과 개선 방향	25
최 인 화(유성중 교장)	
3. 발제자료 II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	49
이 종 석(대전관저중 교사)	
4. 토론자료 I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83
이 병 각(대전용전초 교사)	
5. 토론자료 II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99
최 현 호(대전둔산중 교사)	
6. 토론자료 III	
고등학교 통일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	121
김 학 추(서대전고 수석교사)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이 미 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이 미 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basam@unikorea.go.kr

- I. 들어가며
- II. 정부의 대북정책
- III.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방향

I. 들어가며

1.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

- 한반도 내외의 현황을 볼 때 통일문제는 관념상의 문제가 아닌 해결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 이에 대비하는 통일교육 요청
- 그러나 분단의 장기화에 따라 통일의 과정과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통일문제의 소극적·부정적인 인식이 대두
- 특히 통일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개인주의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통일문제에 무관심한 성향이 두드러짐.

* 지난 10년간('97~'08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의식(통일관/대북관/안보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증가(통일의 관심이 '97년 71%→'08년 57%; 통일의 필요성은 '97년 85%→'08년 68%)와 북한에 대한 이해, 인지도는 감소한 반면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북한 인지도는 '02년 37%→'08년 18%;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04년 12%→'08년 27%)

한편 안보의식이 약화됨과 동시에 안보현실에 대한 인식적 혼란이 존재('08.6 조사에서 6.25전쟁 발발연도를 아는 청소년은 43%, 6.25를 남침으로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49% 차지)

- 이런 점에서 학교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제고와 올바른 통일의식을 고취시켜 통일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의지와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2.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 현행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제고 및 올바른 통일의식 고취를 목표로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한편 청소년 통일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확립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관리자와 일선 교사 등 학교 통일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
- * 2009.10.19 통일교육지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통일교육과정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 구축, 통일교육 전문강사과정 개설, 통일교육 위원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법8조 개정)

3.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

- 통일교육의 방향은 어떤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바람직한 통일과 바람직한 통일한국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구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정부의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행하고 이를 추진 한다.” (헌법4조)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항) 등 헌법의 정신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통일교육 목표에 보다 충실하여 평화통일의식을 함양하면서 ‘미래지향적 통일관’, ‘균형 있는 북한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체계를 보완

II. 정부의 대북정책

1. 상생공영 정책

가. 비전

-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발전을 통해
 - 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긴장완화를 실현하여 ‘평화공동체’를 건설하고
 - ②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돕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며
 - ③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남북 7천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함.
-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 기여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 지향

나. 추진 원칙

- 실용과 생산성
 - △국민적 동의, △비용대비 성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북한의 발전을 촉진, △평화통일 기여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추진
- 원칙에는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 북핵 폐기라는 원칙은 견지하되 이를 위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

- 남북대화는 원칙을 지키고 성과를 거두는 방향에서 남북한에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국민적 합의

-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투명한 정책 추진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조화로운 진전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 지향

다. 추진방향 및 과제(2010년 대북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 과제)

○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추구

-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획기적 전환점 마련
- 북한방문·체류 중인 우리 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적 신변안전 보장 장치 마련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하면서, 투명하고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체계 구축

○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방안 마련
-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효과성 제고
- 일자리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 강화

○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

- 정세변화에 대비, 북한정보 수집 및 정세분석 능력 확충

- 「선진민주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민의지 결집 및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강화
-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조성
- 남북 공동의 그린(Green)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 제고·미래 준비

2. 비핵·개방·3000

- 남북 간 상생·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 이는 북한에게 핵 포기 시 얻게 될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
 -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구상
 - 즉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과 경제공동체라는 ‘큰 열개’를 바탕으로 상호협력과 인도주의에 입각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
-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대북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5대 중점 프로젝트(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 추진
 - 10년 내 1인당 북한주민 소득 3,000달러 경제 실현
 - *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는 중산층의 성장을 의미. 통일 시 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가능

3.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 ‘한반도 신 평화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으로, 한반도 평화실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구상이자 근원적 처방을 제시한 것으로 비핵·개방·3000 을 근간으로 함.

-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재래식 무기 감축으로 상호 신뢰 구축
-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앞장 설 것임.
- o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2009.9.23) 등을 통해 밝힌 것으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향점을 제시
- 이는 북핵 협상과정에서 타협과 파행,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
-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여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일괄 타결안

4. 통일미래 비전

- o 통일정책의 기초
 - 헌법 제 4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규정
- o 정부의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1989년 초당적 합의와 폭넓은 국민합의에 바탕 한 통일방안 마련
- * 연혁
 - 1989년 노태우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로 마련, 1994년 문민정부에서 일부 보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도 공식 통일방안으로 승계
- * 주요 내용
 - 통일원칙 : 민주, 평화, 자주
 - 통일과정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 과정
 - 통일국가 형태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 21세기 한반도 통일비전
 - 21세기 국가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건설
 - 산업화, 민주화의 성공적 발전에 이은 새로운 성장 동력확보로 선진일류국가건설(대한민국의 역사는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성공적 발전의 역사로 남은 과제는 선진화와 통일 즉 '통일 선진일류국가' 건설)
 - 남북이 협력을 넘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통합되어 경제성장의 돌파구 마련, 남과 북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통일 필요
- 통일은 분단이전의 과거로 복귀가 아닌 미래 재창조 작업
 - 통일은 한민족의 새로운 비상과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
 - 통일은 분단극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선진화 그리고 세계일류국가로 가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비전과 도전의식 필요
- 통일은 '바른 통일' 지향
 - 인간의 존엄과 자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통일

Ⅲ.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방향

1. 학교 통일교육 실태 및 문제점

가.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 및 인식 부족

-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경향과 부정적 인식 증가
 - 지난 10년('97~'08)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변화추이를 볼 때 통일의 관심이 '97년 71%→'08년 57%, 통일의 필요성은 '97년 85%→'08년 68%로 점차 감소1) ('09년 11-12 조사, 통일문제 관심은 52.6%, 통일의 필요성 70.3% 응답)2)

1) 07~08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의식(통일관/대북관/안보관) 관련 설문조사 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

- 북한에 대한 이해·인지도는 감소,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
 -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협력의 대상',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이해도 및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은 이에 비례하지 않음 (북한 인지도는 '02년 37%→'08년 18%로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04년 12%→'08년 27%)³⁾
- 안보의식이 약화됨과 동시에 안보현실에 대한 인식적 혼란 존재
 - 안보위협국과 협력국에 대한 객관적 인지 및 안보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08.6 조사에서 6.25전쟁발발연도를 아는 청소년은 43%, 6.25를 남침으로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49%차지)⁴⁾
 - 청소년들은 안보협력국과 위협국으로서 미국을 동시 1위로 인식('08.6조사)

나.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약화

- 통일교육 교과목 편성 및 시수의 부족
 - 통일교육 관련 교과내용이 도덕·윤리과목에 치중되고, 통일교육은 연 평균 약 6.5시간 실시('08년 시·도교육청 협조 조사)
 - * **현행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편성시간은 연간 평균 초등 10시간, 중등 12시간, 고등 17시간**
 - * '09.12 학교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정책추진 일환으로 미래형 교과과정 최종 확정 ('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준비된 학교는 '10년부터 적용가능)→ 교과 내 통일교육이 더욱 축소 우려⁵⁾

2) '09. 11.13~12.4 까지 전국 중고교 재학생 1,083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협의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시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6%는 통일과 북한문제에 관심 있다고 답한 반면 47.4% 관심 없다고 응답. 통일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70.3%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 없다는 29.7% 응답

3) 청소년 상당수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08.11조사, 74%)하며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다수('08.11조사, 81%). 그러나 청소년들 상당수는 북한을 불신('07, '08조사, 70%). 한편 청소년들은 북한체제에 비해 북한주민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09.11~12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66.7%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나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48.6%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

4) '09.11~12 조사에서는 73.4%가 6.25발발 시기를 인지

5)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학년 군 도입, 이에 따라 고교 1학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덕 등 기존 고교 1학년 공통필수과목들이 선택과정으로 전환, 향후 각급 학교에서 국·영·수 몰입교육위해 도덕·사회를 중1·고1에 집중 이수 및 20% 감축 운영할 경우 동 교과 내 통일교육이 더욱 축소 우려, 특히 기존 고교 1학년 필수과목이던 도덕이 사회교과군 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방법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배제 가능

- 통일관련 내용이 대부분 마지막 단원에 편성되어 있어 교육이 생략되거나 소홀히 취급
- 수능시험에서 통일관련 문항 출제빈도가 낮아 학습동기 저하
-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 저하
 - 영재·수학·과학 등 특정 과목에 승진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을 편향적인 이념교육으로 오해
- 교사들의 통일교육 연수 부족
 -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교사 초청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여건상 일정 인원(연간 600~700명)에 한해 교육 실시
 - 각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교사 연수과정(시·도별 통상 연간 30~60여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청에서만 통일교육 직무연수 실시
- 교과서 중심의 교육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저하
 - 판문점, 전적지 등 다양한 통일·안보 체험학습 기회 부족

다. 청소년 통일교육 시스템 미비

- 학교·사회에서의 청소년 통일교육 장려, 담당교사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 미흡

2. 학교 통일교육 기본방향

-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 확립
 - △통일의 당위성·통일국가의 미래상,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 실시
- 청소년 통일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실시

- 통일관련 교과목·시간 편성 확대 및 다양한 학습활동 실시
- 통일문제 관련 다양한 자료 활용
- 청소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관계자 대상 교육 강화
 - 통일교육 담당교사, 장학사,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교육 기회 증대
 - * '09년 한 해 동안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대상 초청연수(8회, 505명), 학교관리자 대상 지역별 '통일강좌'(3회, 1,720명), 통일교육교사 워크숍(2회) 개최,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운영 책임자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 계기 마련
-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
 -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학교와 지역사회 통일교육 관련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청소년 통일교육 관련 법·제도·예산의 확충
 - * 2009.10.19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 통일교육 진흥 등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이 중 학교 통일교육 진흥 조항(법8조)을 보다 구체화하여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

3.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

-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이를 위해 통일과정에 대한 대비(통일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사회문화

형성 요구)만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 간 통합과정(이질화 극복과 통합방안 마련 등) 등에 초점을 두고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국민의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위해 ① 통일 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 능력 배양, ②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③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이질성 극복, ④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⑤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⑥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통일 준비 등을 목표로 구성

가. 통일문제의 이해

1) 통일문제의 성격

- o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지님.
- o 통일은 주체적 조건으로서 통일역량의 강화와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통일 환경의 조성이 지속적으로 준비될 때 가능

2) 통일의 필요성

- o 우리는 왜 통일을 원하는가, 현실적으로 통일은 어떤 변화(국가, 사회적/국제적/개인적 차원에서) 를 가져올 것인가 등에 주목하여 접근
- o 민족적, 당위적 차원의 접근법은 설득력이 없음(당위적, 인도적 차원이 아닌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한민족의식, 전쟁위협 해소 같은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달리 개인과 한반도(국가, 사회) 미래의 경제적 실리 창출, 비즈니스 기회 확보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과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인식

* '09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력강화(28.4%)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24.7%), 한 민족(24.6%) 보다 앞섬.

3) 통일의 내용(통일의 접근방식 및 통일국가의 미래상)

- 통일은 남북한이 상호 적대적인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 통일은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접근방식), 민족구성원 모두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며 통일의 결실을 공유하는 진정한 민족공동체가 실현되는 통일한국 구상(통일국가 미래상)
- * 우리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한 바탕 위에서,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면서 정치통합을 이룩하는 방안
- * 통일한국의 비전과 과제 제시
 - 통일한국은 7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선진 민주복지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위상 고양과 이에 부응하는 역할 수행
 - 통일실현을 위해 우호적인 대외적 통일 환경 조성(통일한국의 역할 제시, 통일한국의 부상 우려 불식 등)과 남북한 내부의 통일 환경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자유민주주의의 토대 공고화, 다원적이며 개방된 사회, 문화제도 성숙, 안정된 경제적 기반 구축, 북한의 개혁개방 등) 과제 수행

나. 북한 이해

1) 북한관

- o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반적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
- o 북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중적인 존재
 -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
 - 북한은 대립과 갈등의 대상(국가안보주의 적인 시각)이면서 동시에 공존공영의 대상(민족우선의 시각)

(2) 북한사회 전반에 관한 이해

-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균형적 인식이 필요
 - 객관적인 이해가 중요하나 객관성확보의 문제(객관적인 자료와 내용 확보문제)
 -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드러난 현상들이 어떻게 야기됐는지에 대한 북한의 특성 즉 북한 적 현상과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을 둘러싼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춘 교육 실시
- 북한사회의 이해는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분야 중심으로
 -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북한의 실상은 북한주민의 생활상과 북한 청소년 관련사항, 북한교육 등
 -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측면보다 현실적이고 학생들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사안 즉 북한의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4. 학교 통일교육의 방식

가. 대상별 맞춤방식

- 청소년들의 수준, 관심 등에 맞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새로운 교수방법과 학습기법을 다양하게 개발 활용, 예컨대 같은 내용이라도 대상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교수방법을 다르게 함.

* 미디어세대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IPTV를 활용한 통일교육 추진, 이를 위해 '10년 전국 24만 개 학급에 구축될 '맞춤형 IPTV 교육서버'에 탑재할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예정

나. 흥미유발, 참여위주의 방식

-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 중심으로 강의 중심(주입식)교육에서 탈피, 흥미유발의 교육내용과 방법 개발
 - 통일문제를 현실적인 삶과 연관, 실용주의적인 접근에 기초
 - 북한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주민들의 문화나 생활에 집중
 -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전자 통신매체 -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보급하는 것.
 - 북한과 통일문제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할 것임.(체험학습, 현장학습 활동 등)
- * 다양한 체험·참여형 통일교육 모델 개발·제공, '09년 한 해 동안 서울지역 22개 학교(4,841명)를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전국 32개 학교(7,784명)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실시
- 이탈주민 만남, 비디오, 영화, 교육방송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북한 이해교육
-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
 - 사료를 제시하고 그 사료를 토대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수업

5.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 입시위주의 교과 과정이 운영되는 현실에서 입시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 혹은 병행가능성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며 다음의 과제들을 수행해야 할 것임.

가. 통일교육의 범 교과화

- 통일 관련 교과목 개편 및 교육시간 증대
 - 국어·역사·지리 등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을 확산하고, 학교에서의 최저 통일교육 시간 설정 추진

- 특별활동이나 학교행사, 단체 수련 활동을 통해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
- 이를 위해 교원연수원과 청소년 단체, 시민사회단체에 위탁교육을 통해 통일교육 실시

나. 교사, 교육행정 종사자들의 통일의식 제고

- 예산지원이나 통일교육 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장과 교육행정직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장·교감·장학사·연구관·교육위원 등 교육관계 전문가 대상 통일교육 기회 확대

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 학습 자료

- 정규 편성된 교과내용과 시간만으로 통일교육이 어려움, 통일반과 같은 특별활동 영역의 개발이 필요
-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활용
-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효과가 높은 청소년 친화형 멀티미디어 자료

<끝>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진단과 개선 방향

최 인 화
유성중학교 교장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진단과 개선 방향

최 인 화 (유성중학교 교장)

- I. 문제 제기
- II. 학교 통일교육의 반성
- III. 학교 통일교육의 지표
- IV.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 V. 맺음말

I. 문제 제기

1. 통일문제에 대한 낮은 국민적 관심

- 통일문제 및 대북한 정책은 국가적 현안과제이며, 민족 지상과제인가?
- 호전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며 민족의 통일문제를 펼쳐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에 대한 사실적 이해 노력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 1945년 해방된 조국이 둘로 갈라지고 다시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 동족상잔의 고통이 이 땅을 휩쓸었어도 분단 65년이란 장기간의 세월속에 전쟁의 고통이 잊혀져가고 있다. 일천만이산가족의 문제와 국군포로 문제 등이 남아 있으나 이는 인도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대부분의 국민의 의식 속에는 남의 일처럼 여기는 풍조도 생겨났다.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 정권이 휴전선 155마일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잊고 사는 안보의식 해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회의의식과 무감각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현실, 더구나 같은 민족이면서 상대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분단 상황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 국민들은 동서독의 통일에서 보듯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문제가 따를 것을 염려하고, 통일 후에 예견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혼란에 대한 두려움도 지니고 있는 듯하다.

- 특히 이 나라의 역군으로 국가발전과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할 오늘의 청소년들이 대체로 통일문제나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낮은 관심,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이다. 대체로 권위있는 국가기관이나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이해도 및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은 이에 비례하지 않음.(북한 인지도는 ‘02년 37%→’08년 18%로 감소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04년 12%→’08년 27%로 증가하고 있다.)
- 이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부족, 학교 및 사회 교육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살아있는 교육이 미흡하였으며, 통일정책이나 북한정책 등이 정치적 논리로 움직이는 면이 있고 특히 호전적인 북한 정권에 대한 염증과 기피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도대체가 북한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어렵다. 합리적인 대화나 토론의 카운터 파트너가 아니다. 여전히 무력에 의존하고 벼랑끝 외교전술(brinkmanship strategy)이나 펼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집단이다.”라고 보며, 북한과의 대화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하는 체념의식이 우리에게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청소년의 부정적 통일의식 형성의 원인

- 청소년들의 통일의지가 낮고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 1) 자기 중심적 가치관과 개인주의적 생활태도
 - 2)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른 통일문제의 관심이나 심리적 여유가 적음.
 - 3) 통일교육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서 흥미가 떨어짐.
 - 4)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관한 교수기법이 다양하지 않음.
- 그리하여 민주화 이후의 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전쟁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을 모르는 세대로서 경제적 풍요와 개성만능, 물질주의적 가치관, 이기적 생활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국가적 차원의 통일문제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서울대 통일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20대의 대학생들이 무려 19.5%나 되었음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Ⅱ. 학교 통일교육의 반성

1.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 통일교육은 전 교과, 전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져야 함에도 교사들의 통일교육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교사 직전교육 및 교사 재교육 과정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이나 연수기회가 부족함)
- 통일교육 교사연수 기회의 부족(통일교육원에서의 교사 통일교육 과정이 연간 600~700명 정도이며, 전국의 사회과 교사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실정임.)
- 통일교육담당 교사 실태
 -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전망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하며,
 - 도덕, 사회 교과를 제외한 타 교과목의 내용이 통일과 관련성이 적으며,
 - 학교 통일교육에 필요한 통일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편이며,
 - 통일교육은 교재에 근거한 강의식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범교과 수업에 활용할 통일교육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 통일의지가 미흡한 학생의 실태
 -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편이며,
 - M세대로서 형식적이고 주입식 수업 위주의 통일교육에 부정적이며,
 - 북한을 동족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낙후와 가난한 나라로 인식
 - 이기주의적 경향으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통일에 소극적 경향이 있고,
 - 탈북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 내지는 인격적 경시태도
-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실태
 - 입시 위주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과 주요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를 평가하는 교육정책에 휩쓸리고 있으며,

- 통일 및 북한문제에 능통한 보다 많은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며,
- 학교 통일교육이 일회성의 행사로 그치는 경향이 있으며,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거나 시의 적절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부족 등이다.

2. 학교 교육과정속의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에 있어 6차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주로 담당 하던 교과는 도덕·윤리교과였다. 그러나 통일교육 수업시수도 30%이상 축소되었으며, 도덕과 중학교 2학년과 고교 1학년에서 중점 지도되고 있을 뿐 통일교육 관련 교과(사회)에서는 일부 관련 내용이 있으나 부차적으로 다룰 뿐이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별로 줄어든 수업시수를 통일교육에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덕·윤리, 국어, 사회, 예체능 등 범교과적 학습 및 교과 외 활동인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7차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시행에 있어서 미지수이다.

○ 통일교육 교과목 편성 및 시수의 부족

- 통일교육 관련 교과내용이 도덕·윤리과목에 치중되고, 통일교육은 연 평균 약 6.5시간 실시

* 현행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편성시간은 연간 평균 초등 10시간, 중등 12시간, 고등 17시간 정도임

○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 저하

- 영어·수학·과학 등 특정 과목에 승진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으나 통일관련 업무를 맡아하던 윤리부장 제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통일교육업무는 특정 부장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음.
- 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을 편향적인 이념교육으로 오해

○ 각 시·도교육청 및 교원연수원에서 교사대상의 통일교육 연수 배려 부족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및 교감, 교장 자격연수에서 통일교육 강좌의 배려가 적어지고 있는 실정

- 각 시·도교육청 주관의 사회과교사 대상 통일교육 전문연수 과정이 근년에 들어 축소되는 경향
- 각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교사 연수과정(시·도별 통상 연간 30~60여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청에서만 통일교육 직무연수 실시

3.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 비판

- 통일교육 학습의 실천과 교육적 의미의 미흡
 - 북한이해와 통일교육에 관한 적절한 학습 내용선정 및 다양한 교수방법의 적용과 평가기법 등
- 통일의지 및 가치관의 계발보다는 사실적 지식위주의 통일교육
 - 통일교육은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그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남북한의 분단구조를 깨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민족 복지를 위하여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가는 의지를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정의적 교육도 중요한 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의 통일교육은 교사 중심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입식 수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분단의 원인과 배경, 북한사회의 제도나 지리적인 여건, 통일의 원칙과 정부의 통일정책방안에 대한 암기와 이해 등의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통일교육 내용의 적정성과 정치성에 대한 성찰 미흡
 - 통일교육은 '미래의 통일한국상'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실현하기위한 통일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의 학습내용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국민적 지지 속에 헌법적 가치를 담아있는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의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이 과연 정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속에 마련된 통일정책 구현에 이바지하고, 청소년들의 통일의지를 키우는데 최선의 것인가는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

○ 북한 및 통일문제 현상의 인식과 평가 태도

- 북한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협하며 군사적 적대감을 보이는 존재이며, 동시에 민족통일의 파트너로서 화해와 협력의 상대라는 이중적 존재로서 위치를 전제하여 통일 및 북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 통일관련 내용이 대부분 마지막 단원에 편성되어 있어 교육이 생략되거나 소홀히 취급되는 상황이며, 수능시험에서 통일관련 문항 출제빈도 낮음

○ 다양한 통일교육 학습자료의 개발이 부족하며, 시의성이 떨어짐.

○ 교과서 중심의 교육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저하

* 판문점, 전적지 등 다양한 통일·안보 체험학습 기회 부족

- 결국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강의식 수업은 현재의 환경에서 적절치 않으며, 현장견학이나 현장체험,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 토론·토의 수업 등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천안함 사태에서 비롯된 안보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경계의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6자회담 문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 측의 과잉조치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북한정권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국민적 안보의식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Ⅲ. 학교 통일교육의 지표

1. 통일교육의 목표

-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인간다운 생활을 기초로 한 복지사회의 한반도 전체로의 확산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족공동체의 틀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은 통일의 과정에서 항상 유념하고 실천해야 할 최선의 가치체계(belief system)이다.
- 정부의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행하고 이를 추진한다.”(헌법4조)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항) 등 헌법의 정신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통일교육 목표에 보다 충실하여 평화통일의식을 함양하면서 ‘미래지향적 통일관’, ‘균형 있는 북한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기초

- 헌법 제4조,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규정

○ 정부의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는 1989년 초당적 합의와 폭넓은 국민합의에 바탕 한 통일방안 마련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을 강조한다.

* 주요 내용

- 통일원칙 : 민주, 평화, 자주
- 통일과정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 과정
- 통일국가 형태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 통일은 ‘바른 통일’ 지향

- 인간의 존엄과 자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통일
-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구현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의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3년의 문민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98년의 국민의 정부는 ‘대북화해 협력정책’을, 2003년의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남북관계의 변화, 북핵문제 관련 한반도 정세 등을 반영하여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의 형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 나가고
-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였다. '비핵·개방·3000' 정책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위하여 북한이 핵 폐기의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내에 3,000달러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쳐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9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남북간 재래식 군비감축,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 이명박 정부의 통일 정책 추진 원칙(* 2010 통일교육지침서 p 50-59)

- 실용성과 생산성에 입각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
- 국민의견의 폭넓은 수렴과 투명한 정책 추진
- 북핵 폐기 원칙은 철저하고 원칙으로 성과 있는 대화를 추진
-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유관국과의 조율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확보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발전 지향
-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
-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는 생산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선진민주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지를 결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을 강화

○ 통일교육의 임무는 통일한국의 미래상 제시와 정부의 대북정책 초점 이해

- 이상우 통일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최근의 남북한 관계와 통일교육의 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2010.5.13, 제주도) 남북분단 65년 동안 남북한 사회 및 국제정치 환경과 통일 환경도 크게 바뀌었고 이에 따라 통일의 의미, 국민의 통일의식, 통일정책도 달라졌으며, 통일교육은 이제 새 시대환경에 맞도록 다듬어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바른 이해를 돕는 것이어야

하며 통일교육의 5가지 방향으로는

- 1) 통일한국의 미래상 제시
 - 2)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
 - 3) '비핵·개방·3000' 등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 4) 남북통일을 위한 사회적 통합 방향 제시
 - 5)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인식 등을 들고 있다.
- 남한 국민 중 90% 이상이 분단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잘 알지 못하고 함께 살아보지 않았으므로 정감적 차원에서도 동족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특히 오늘의 청소년들에게는 북한 동포에 대한 동족인식, 통일의 당위성, 합리적인 통일 방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통일신문, 2010. 5. 24 '통일한국의 미래상 방향제시' 참조)
-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의식을 제고시키고, 남북한 관계 및 현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능력을 신장시키며, 평화통일을 일구어 갈 실천의지와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IV.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1. 학교 통일교육 기본방향

-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 확립
- △통일의 당위성·통일국가의 미래상,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 실시
-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모두가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이다.
- 통일문화의 창조를 강조하는 학교통일교육 지향
- 통일문화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즉, 통일문화란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통일에 기여하는 민족 통합을 촉구하도록 해주는 가치관과 문화적 생활양식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남북한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남북한 언어생활의 차이 이해, 남북한의 역사와 예술 활동 탐구, 상이한 남북정치 및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 상대를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공동 발굴, 통일된 한국의 미래상 탐구와 발전 방법의 모색 등을 통해 가능해 질 것이다.

- 통일관련 교과목·시간 편성 확대와 가능한 전 교과에서 다양한 학습활동 실시

- 통일문제 관련 다양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적절성 유지 필요

- 통일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관련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통일부 통일교육원(북한의 이해,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지침서 등), 각 대학의 통일연구소, 각 언론기관의 통일연구소, 기타 민간 차원의 통일연구전문단체, 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교육위원협의회, 각 지방의 통일교육센터 등 활용

- 청소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관계자 대상 교육 강화

- 통일교육 담당교사, 장학사,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교육 기회 증대

2.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

1) 학교 통일 교육의 내용

- 통일교육의 강조점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국민의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위해 ①통일 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②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③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이질성 극복, ④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⑤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⑥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통일준비 등을 목표로 구성

○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이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통일문제 이해 : 역사적 정통성 회복과 전쟁의 위협해소, 민족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의 필요성 인식
- ② 북한 이해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상의 이해, 경제난과 대외정책, 군사력, 인권문제
- ③ 변화된 통일 환경의 이해 : 불안정한 국제정세 인식
- ④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실태 인식 : 인도적 지원 사업의 사례알기
- ⑤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선진 복지국가와 민족사회의 통합지향 등
- ⑥ 통일준비 : 실질적 민족공동체 의식구축과 통일기반 조성, 민주시민 의식의 생활화

2) 통일교육의 쟁점

○ 우리는 왜 통일을 원하는가?

- 민족적, 당위적 차원의 접근법(통일의 당위성이나 인도적 차원)이 아닌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차원(통일을 이룸으로써 국가발전, 전쟁의 위협해소, 경제적 사업 확장, 중국 및 러시아로의 접근용이, 복지증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의 통일문제를 인식의 변화

* '09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력강화(28.4%)가 이산가족 문제해결(24.7%), 한민족(24.6%) 보다 앞섬.

3) 통일조국의 미래상

○ 통일한국의 모습 :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로서 모든 국민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복지국가

○ 통일한국의 수립: 평화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접근방식), 민족구성원 모두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며 통일의 결실을 공유하는 진정한 민족공동체가 실현되는 통일한국 구상(통일국가 미래상)

- 통일은 7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선진 민주복지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위상 고양과 이에 부응하는 역할 수행

4) 북한은 이중적인 존재임을 인식

-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
- 북한은 대립과 갈등의 대상(국가안보주의적인 시각)이면서 동시에 공존공영의 대상 (민족우선의 시각)

* 북한은 2008년 12월 말 현재 상비전력이 육군 102만명, 해군 6만명, 공군 11만 명으로 총 119만여 명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군 총병력 65만 명의 1.8배 규모이다. 북한 사회 전체가 거대한 병영체제로서 '4대 군사노선'에 따라 전 인민을 무장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를 전시동원 대상으로 하여 770만여 명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예비전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

구분	병력	비 고
교도대	60만여 명	· 전투동원 대상 - 남자 : 17~50세, 미혼여자 : 17~30세
노농적위대	570만여 명	· 향토 예비군 성격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 고등중학교 군사조직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 군수동원지도국, 속도전 청년돌격대
계		770만여 명

출처 : 『2008 국방백서』, 2009.1.19, p.28.

5) 북한의 교육, 정치 사회상에 이해

- 북한의 교육목적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 즉, 북한의 교육목표는 개인의 자아발달(自我發達)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구성원의 양성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한 충직한 인재양성을 추구한다.

-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로 유지되어 왔고,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수단으로서 북한의 정치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이다. 주체사상은 전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토대위에 사회주의 독재체제, 김일성주체사상과 결부된 단일 민족주의적 색채를 표출하고 있다.

6) 북한사회 전반에 관한 이해

-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균형적 인식이 필요
 - 객관적인 이해가 중요하나 객관성확보의 문제(객관적인 자료와 내용 확보문제)
-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북한의 실상은 북한주민의 생활상과 북한청소년 관련사항, 북한교육 등이다.
 - 현실적이고 실생활과 관련된 즉 북한의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7)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정치의 이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강대국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채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의 수뇌부를 강타할 쇠망치’(a hammer ready to strike at the head of China) 또는 ‘순치관계’(脣齒關係)로 생각했고, 일본은 같은 논리로서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부를 겨냥한 단도’(a dagger pointed at the heart of Japan)로서 생각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러시아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지로서의 역할도 하였으며, 미국은 한반도를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파제로서 생각해 왔다.

3.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1) 통일교육의 원리

첫째, 학습자의 경험과 발달의 원리를 고려한다. 학습자의 사회성 발달이나 도덕성의 발달정도 그리고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거나 쉽게 이해하고 접촉할 수 있는 학습경험의 선정과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자발성 원리이다. 학습자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학습을 하려는 욕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체험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통일문제가 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등에 대한 호기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및 지적 수준에 맞추어 눈높이 교육을 한다. 학생들이 보이는 관심과 경험의 정도, 지적 판단력의 수준 등을 고려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지리적 정보나 북한 정권의 실체, 북한의 문화와 유적지 탐구,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정책 등에 대한 탐구 등은 학습자의 연령과 사회적 발달의 경험을 고려한 낮은 지식에서 깊은 지식으로 학습내용의 계열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가 처한 학습환경이나 교육공학적 환경에 유의한다. 오늘날은 청소년들이 영상세대 혹은 M세대라고도 불리며, 컴퓨터 통신에도 능하다. 그러므로 전자통신 매체와 다양한 영상물에 비교적 익숙한 세대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영상학습이나 시청각학습, 웹 기반학습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 관련 다양한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현장에 지속적으로 보급,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탐구학습, 범교과적 학습,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체험학습, UCC 동영상 자료의 제작과 보급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나가야 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사실적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태도와 감성적 훈련도 함께 해야 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통일관과 자세를 형성하기 위한 가치태도 교육의 실천도 중요하다.

여섯째,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6.25 전적지 견학이나 전쟁기념관의 견학과 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예술단의 공연 감상, 통일교육 전문가를 활용하는 초빙강연을 통한 간접체험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 2009년 9월 현재 탈북이주민의 수는 약 2만여 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우리 남한체제 안에서 살고 있으나 통일이 되면 다시 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통일의 역군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민족 통합차원에서 통일교육의 대상으로 적극 수용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 탈북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온 많은 탈북주민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상이한 사회주의체제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과 가치관의 교육 및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교육은 아주 생소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차원에서 이들에게 민족의 정통성,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의 성찰, 남북한의 민족문화와 통일된 한국의 미래상, 올바른 통일문화 등을 가르쳐야 한다. 탈북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올바른 통일문화의 형성과 실천역량은 민족 통합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아홉째, 젊은 세대가 보이는 영상세대로서의 특성을 감안한 영상매체활용 교육은 매우 효과적으로 북한 및 통일교육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웰컴 투 동막골', 'JSA', '쉬리' 등 남북을 주제로 한 영화들의 주 관객이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관객이란 점에 유의하여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열째,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신문이나 방송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수업이 중요하다. 신문이나 방송자료들은 교과서가 따라가지 못하는 신속성과 시의성을 지닌다. 살아있는 지식으로서 다양한 최근 자료와 소식을 접할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보다 생생한 뉴스를 접하게 되고 사건 현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깊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계발할 수 있다. 통일문제 관련 UCC 만들기, 북한 문제관련 NIE(신문을 활용한 수업) 학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디어세대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IPTV를 활용한 통일교육 추진을 이를 위해 2010년 구축될 '맞춤형 IPTV 교육 서버'에 탑재할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24만개 학급에 보급 예정이다.

2) 통일 학습의 내용구성

-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 중심으로 강의 중심(주입식)교육에서 탈피, 흥미 유발의 교육내용과 방법 개발
- 통일문제를 현실적인 삶과 연관, 실용주의적인 접근에 기초

- 북한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주민들의 문화나 생활에 집중
-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이메일 등 전자 통신매체 또는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보급하는 것.
- 북한과 통일문제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할 것임.(체험학습, 현장학습 활동 등)
- 이태주민 만남, 비디오, 영화, 교육방송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북한 이해교육
-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수업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구안 및 실천

학생들은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림 등 시청각 자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을 즐겨하고 컴퓨터에 매우 익숙해 있다. 지루해지기 쉬운 통일교육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 등 ICT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재미있고,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을 구안해야 한다.

통일문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실생활과 별 관련이 없으며, 학생들 스스로도 통일교육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제가 처음부터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구안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쟁점 토론 및 발표, 통일 신문 만들기, 통일관련 체험학습, 탐방, 역할극 등이 있다.

○ 통일관련 교내 행사의 실시

다양한 교과 외 통일관련 교내 행사 프로그램의 예시 운영은 다음과 같다.

통일 관련 교내 행사

월별	행사명	행사내용 및 방법	대상
4	통일 삼행시 짓기 통일 웅변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작품 표창 ◦ 3행시 체제 : 한민족, 한반도, ◦ 학년 및 반별 예선을 거쳐 교내 본선 대회 실시, 최우수학생은 시 대회 출전 자격부여 	전교생
5	통일 글짓기, 통일 포스터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작품 표창 	전교생
6	6.25 음식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 시간 활용 ◦ 전쟁의 아픔 실감하기 	전교생
7	북한자료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사진, 북한 교과서, 생필품 등 	전교생
9	통일 골든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퀴즈 대회 	1,2학년
10	탈북인사 초청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북한 및 통일의 전망 	전교생
11	통일 정보 사냥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정보 수집 활용 능력 향상 	1,2학년

○ 1-2학년 현장체험 학습활동

- 1-2학년 현장체험 학습 중에 민족과 통일에 관련이 있는 전쟁기념관, 거제도 포로수용소 견학을 하고, 각반의 반장과 대의원등을 대상으로 6.25 격전지, 다부동 전투지 등을 살피고, 3사관학교 견학과 열병식을 관람하며, 통일의지를 키우고 보고서를 제출케 하여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

4.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1) 통일교육의 범교과화

○ 통일 관련 교과목 개편 및 교육시간 증대

- 국어·역사·지리 등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을 확산하고, 학교에서의 최저 통일교육 시간 설정 추진

- 정규 편성된 교과내용과 시간만으로 통일교육이 어려움, 동아리 활동의 장려 및 6.25 전적지 탐방, 유해발굴 지역의 답사 등 체험학습 영역의 개발이 필요

- 특별활동이나 학교행사, 단체수련 활동을 통해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
- 교원연수원과 청소년 단체, 시민 사회단체에 위탁교육을 통해 통일교육 실시

2) 통일교육 담당 교사 및 교육전문직의 통일연수 확대

- 학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에게 통일교육 전문연수과정의 확대 및 활성화

3) 통일교육의 교과서 및 학습자료 개발 보급

-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활용
- 청소년들의 흥미 제고와 교육효과가 높은 청소년 친화형 멀티미디어 자료
- 학생들은 북한의 같은 또래 학생들의 생활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으므로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상을 균형적인 시각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모바일(M) 세대의 특성에 맞는 눈높이교육이 필요하다.

4)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확대

- 학교자율화로 교육과정의 20%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면 현재 통일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덕교과가 사회교과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교육과정 속에서 자칫 통일교육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의무적으로 통일교육 영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을 보다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전 교사의 통일교육 연수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성하는 4개의 영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나누어 있는데, 통일교육의 경우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의 영역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계획 속에 교사가 지도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추진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찾아가는 통일교육”의 활성화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화

- 학교에서 통일관련 초청 행사를 할 때 가끔 중학생 수준에 맞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강연으로 난감할 때가 있다. 이에는 각 시·도에 있는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위원회의, 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통일유관단체와의 협력과 연계가 매우 필요하다.

V. 맺음말

우리 민족 지상과제로서의 통일은 현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며, 단순한 영토의 통합과 행정기구의 재통일(Reunification)이 아닌 신통일(New Unification)이어야 한다. 그 모습은 7000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며 복지사회를 이루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민족 공동체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반도 내에서의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호전적인 북한정권을 남북 분계선 155마일(248km)에 걸쳐 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NLL 선을 넘어 서해 영해를 침범해오고 급기야 북한 어뢰에 의한 우리 천안함이 공격당하여 많은 해군병력이 손실당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미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북간 군사적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했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최근 천안함 사태 및 개성공단의 사업을 둘러싼 남북간의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상생·공영,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두 축은 평화와 경제협력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통일교육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안보의식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남북한간의 신뢰회복과 경제, 사회·문화의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문화의 형성에 지름길을 놓는 국가적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야 할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북한관계에서 우리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며, 신뢰회복과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을 추진하는 통일사업의 창조적 통일꾼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은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과지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일한국을 실현하는데 주체가 될 통일사업의 창조적 일꾼까지 육성하는 교육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리라 본다. <끝>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

이 종 석
대전관저중학교 교사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

이 종 석 (대전관저중학교 교사)

- I. 들어가는 말
- II. 통일에 대한 인식 실태
- III. 통일교육의 실제
- IV. 기대 효과

I. 들어가는 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을 뿐 아니라,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위해 힘써 왔다. 통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우선적 책임이며 민족 최대의 과제로 남았고 21세기 선진 한국의 번영은 평화적 통일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러나 통일은 단순히 의지의 표출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통일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길러나가야 한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자원들이 남북한 간의 소모적 경쟁에 소비되고 있다. 통일의 달성은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민족의 위상과 역량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이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항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이라는 통일교육의 목표가 나와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시키고, 객관적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며,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갈 수 있는 실천 의지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과 통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하여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비전을 공유·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은 분단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적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행사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본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용을 통한 통일외식 제고를 위한 본 연구 운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관련 교과, 창의적 재량활동, 계발활동 시간에 남북한과 관련된 주제를 추출하여 북한현실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 나. 통일부, 통일교육원, 각종 기관 및 단체의 홈페이지와 통일교육 UCC 제작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 다. 행사 중심의 학교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통일문화 체험,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II. 통일에 대한 인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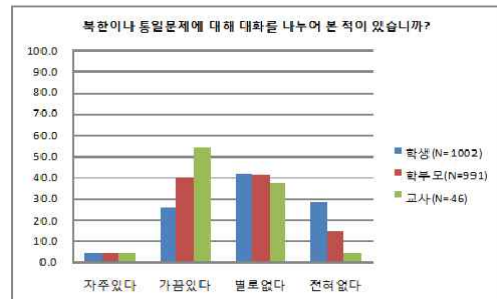
1. 학생, 학부모, 교사 실태조사 비교 결과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2010.3)하여 대전관저중학교 학생(1002명), 학부모(991명), 교사(46명)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가?

(단위:%)

구분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학생	4.1	25.8	41.5	28.5
학부모	4.2	40.0	41.1	14.7
교사	4.3	54.3	37.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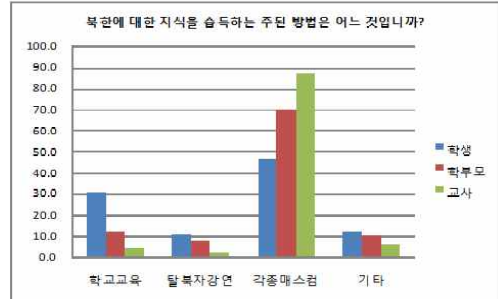


학생, 학부모보다는 교사가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적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북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주된 방법은?

(단위:%)

구분	학교교육	탈북자강연	각종매스컴	기타
학생	30.7	10.9	46.4	12.0
학부모	12.2	7.6	70.1	10.1
교사	4.3	2.2	87.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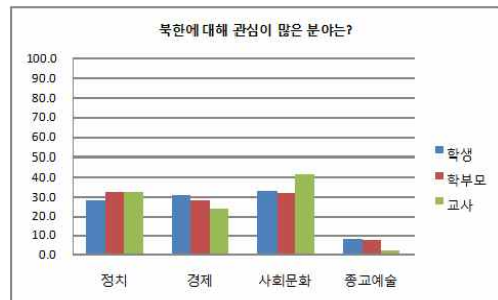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지식 대체적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은 학교교육에서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야는?

(단위:%)

구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예술
학생	28.3	30.7	32.7	8.2
학부모	32.3	28.4	31.9	7.5
교사	32.6	23.9	41.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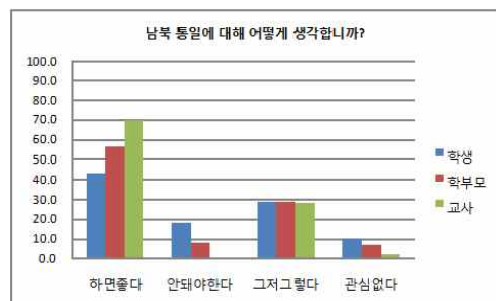


대상자 모두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비교적 고른 관심을 보였고, 종교예술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라. 남북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위:%)

구분	하면좋다	안되어야한다	그저그렇다	관심없다
학생	43.2	18.0	28.7	10.1
학부모	56.5	8.0	28.6	7.0
교사	69.6	0.0	28.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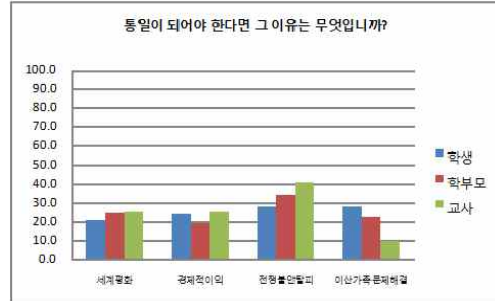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다는 반응이 별 관심이 없다는 반응보다 조금 높은 정도이고, 교사의 통일 염원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라-1.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단위:%)

구분	세계평화	경제적 이익	전쟁불안탈피	인간가족문제해결
학생	20.4	23.8	27.6	28.1
학부모	24.6	18.8	34.2	22.3
교사	25.0	25.0	40.6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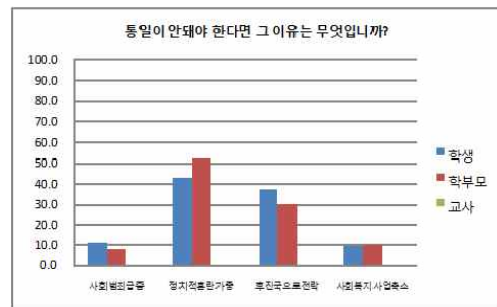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라-2. 통일이 안 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단위:%)

구분	사회범죄 급증	정치적 혼란가중	후진국으로 전락	사회복지사업 축소
학생	11.0	42.9	37.1	9.0
학부모	7.8	52.2	30.0	10.0
교사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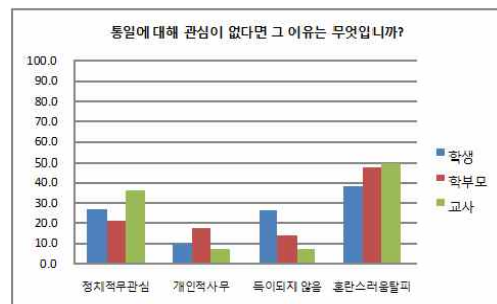


교사는 모두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학생, 학부모의 통일반대 이유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라-3.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단위:%)

구분	정치적 무관심	개인적 사무	특이되지 않음	혼란스러움탈피
학생	26.5	9.8	25.9	37.8
학부모	21.1	17.2	13.9	47.8
교사	35.7	7.1	7.1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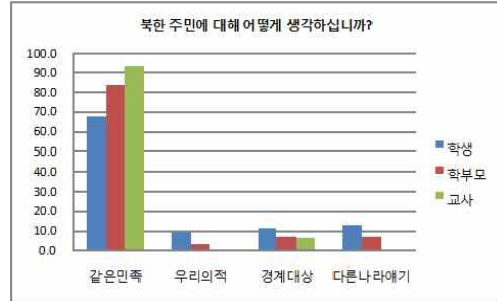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혼란스러움 탈피와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다.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위:%)

구분	같은 민족	우리의 적	경계 대상	다른 나라 얘기
학생	67.3	8.9	11.4	12.5
학부모	83.4	3.0	6.8	6.9
교사	93.5	0.0	6.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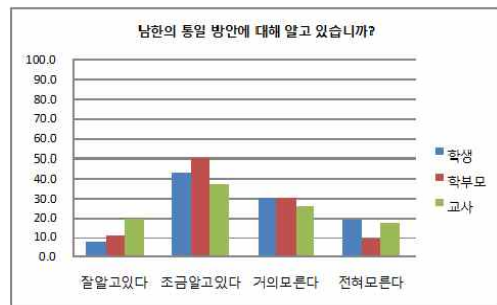


북한 주민에 대한 생각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바.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단위:%)

구분	잘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학생	7.4	43.1	30.3	19.2
학부모	11.0	49.9	30.3	8.8
교사	19.6	37.0	26.1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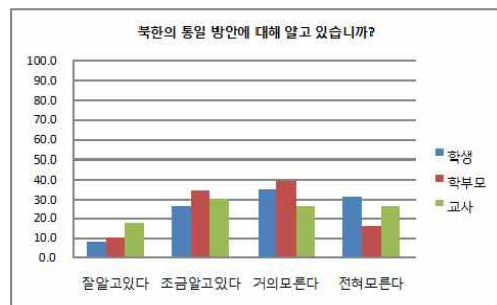


대상자 모두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단위:%)

구분	잘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학생	7.8	25.7	34.9	31.5
학부모	10.1	34.5	39.4	16.0
교사	17.4	30.4	26.1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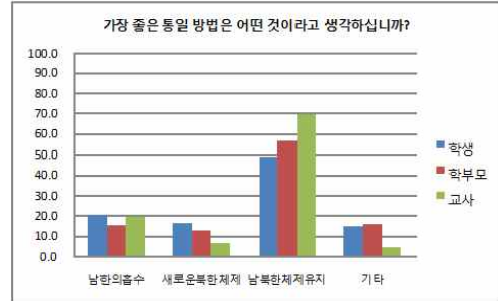


대상자 모두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 가장 좋은 통일방법은?

(단위:%)

구분	남한의 흡수	새로운 북한체제	남북한 체제유지	기타
학생	20.2	16.4	48.6	14.9
학부모	15.3	12.4	56.3	15.9
교사	19.6	6.5	69.6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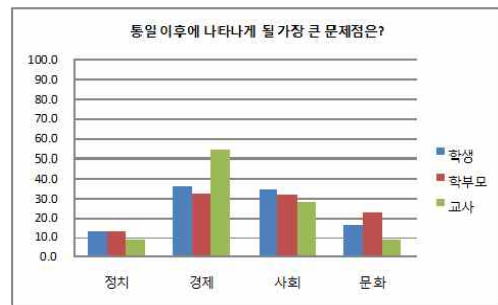


가장 좋은 통일방안으로는 남북한 체제 유지로 나타났다.

자. 통일 이후에 나타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단위:%)

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생	13.4	35.9	34.4	16.3
학부모	13.1	32.3	31.8	22.8
교사	8.7	54.3	28.3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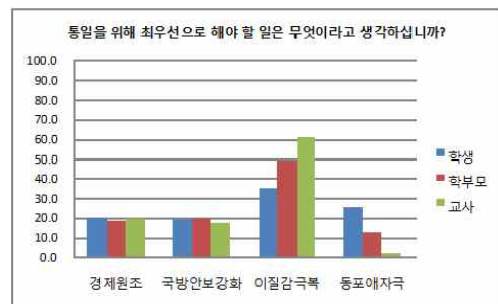


대상자 모두 통일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통일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단위:%)

구분	경제원조	국방안보강화	이질감극복	동포애자극
학생	20.2	19.3	35.2	25.3
학부모	18.5	19.5	49.4	12.6
교사	19.6	17.4	60.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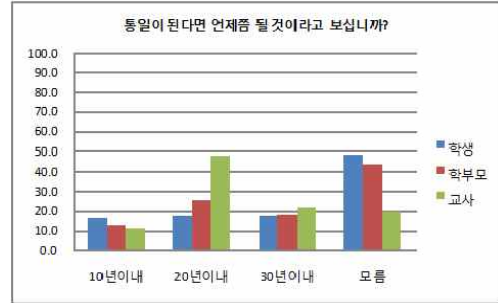


학생과 학부모는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교사는 이질감 극복이 가장 큰 문제로 동포애 자극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카. 통일이 된다면 언제쯤이 될까?

(단위:%)

구분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모름
학생	16.7	17.5	17.6	48.3
학부모	12.8	25.5	18.1	43.6
교사	10.9	47.8	21.7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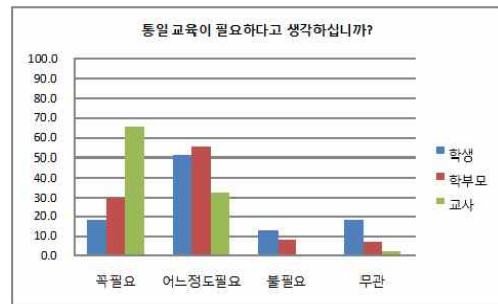


교사 중 절반정도는 2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타. 통일교육이 필요한가?

(단위:%)

구분	꼭 필요	어느정 도 필요	불 필요	무관
학생	18.1	51.1	12.6	18.3
학부모	29.7	55.1	8.2	7.1
교사	65.2	32.6	0.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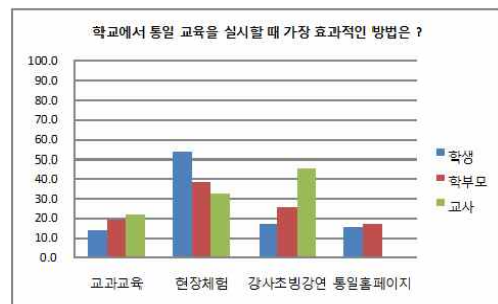


응답자 모두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느끼고 있다.

파.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위:%)

구분	교과교육	현장체 험	강사초 빙강연	통일홈 페이지
학생	14.0	53.7	17.0	15.4
학부모	19.1	38.1	25.6	17.2
교사	21.7	32.6	45.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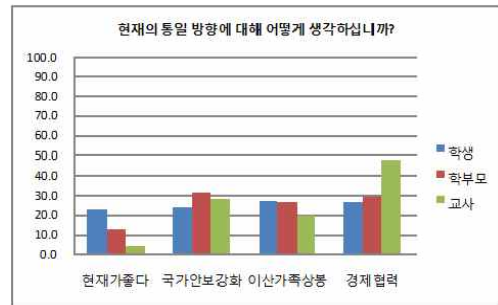


통일교육으로는 현장체험학습과 강사초빙강연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 현재의 통일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위:%)

구분	현재가 좋다	국가안 보강화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 력
학생	22.6	23.9	27.1	26.4
학부모	12.6	31.5	26.6	29.3
교사	4.3	28.3	19.6	47.8



응답자 중 교사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경제협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2. 시사점

통일에 대한 인식의 실태 조사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른들이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데 소홀했으며, 북한이나 통일문제는 학생들 사이에 관심이 적은 분야로 학교나 언론매체,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현재 분단 상황에서 태어났으며, 앞으로 살아갈 미래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인다. 통일을 이룬 국가 중 독일의 경우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혼란스러우며 성장이 둔화된 점을 고려해볼 때 이는 당연히 우려되는 사항이며,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더욱 도약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은 현 체제를 각각 유지하면서 통일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을 인정하면서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의견으로 종래 학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통일의 방향과는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교육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넷째, 실제로 견학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대가 엿보인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실제로 체험하고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Ⅲ. 학생 참여 통일교육의 실제

1. 북한현실 이해교육

가. 관련 교과

1) 국어과 교수 · 학습 과정안

다음은 국어교과 특성과 수업형태에 맞는 통일교육 및 북한관련 요소를 추출, 반영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국어과 교수 · 학습 과정안

단 원	대단원	3. 문학의 표현		지도교사	2학년	학습 자료	ppt, 학습지
	소단원	(2) 들판에서		차 시	5/6		
추 천 사이트	http://tongil.moe.go.kr/ http://cafe.daum.net/song2007					활용 기기	프로젝션TV, 노트북
학 습 목 표	1. 작품의 인물이나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작품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할 통일에 대한 의식을 말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형태	학 습 내 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전체 학습	인사 출석확인 전시학습 확인 학습목표 제시	- 인사하고 출석을 확인 -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와 누구이며, 누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말해 보자. - 판서된 학습목표를 설명한다.	- 인사한다. - 인물 : 형, 아우, 측량기사. 갈등 : 외형상 갈등 대립은 형과 아우의 성격 차이에서 빚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기꾼인 측량기사의 위기의식 조장에 의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발표한다. - 칠판의 학습목표를 읽으며 학습할 내용을 떠올려본다.	5'	ppt	

학습 단계	학습 형태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전 개	전체 학습	내용학습	- 이 작품의 구성단계를 사건 전개과정에 따라 나누어 보자.	- 사건 전개에 따라 나누어 학습지에 정리해 발표한다.	8'	학습지
	개별 학습		- 날씨의 변화에 따라 사건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정리해 보도록 한다.	- 사건의 전개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날씨와 연관이 지어 정리해 본다.		학습지
	전체 학습	내용학습	- 형제간의 갈등과 화해에 대해 이야기한 이 작품에서 '갈등'과 '화해'에 관련된 소재를 찾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자.	- '갈등'과 '화해'에 관련된 소재는 무엇이었는지 찾아보고, 소재의 속성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본다.	6'	ppt
			- 이 작품에서 쓰인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구성단계를 통해 정리해보자.	- 구성 단계별로 작품에서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보고 발표한다.	5'	학습지 ppt
	모듬 학습		-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적어보자.	- 학습지에 작품의 주제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 이 작품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보자.	- 이 작품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현실의 삶 속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남북의 대립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5'		
	전체 학습		- 모듬별 토의를 통해 작품 속의 상황을 현재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된 상황으로 연계하여 한민족 간의 통일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 학습지에 토의를 통해 얻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 한민족의 통일방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학습지에 정리해보고 모듬원끼리 토의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한다.	8'	학습지
			-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도록 한다.			
정리 및 평가	개별 학습	형성평가	-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한다.	- 형성평가를 풀어본다.	8'	형성 평가지
	전체 학습	심화보충 학습 안내	- 남북의 대립과 화해를 드러낸 문학작품을 더 살펴보도록 참고 사이트를 안내한다.	- http://cafe.daum.net/song2007		판서
		과제제시 및 차시예고	- <학습활동> '적용학습'에 제시되어 있는 민들레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읽어오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 <강아지 똥>, <옥상의 민들레꽃>, <민들레 연가>를 읽어본다.		

2)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안

다음은 도덕교과 특성과 수업형태에 맞는 통일교육 및 북한관련 요소를 추출, 반영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안

일시	2010. 11.	대상	2학년	지도교사	-----
단원명	II 바람직한 국가·민족 생활 4.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1) 통일의 의의			차시	1 / 15
학습 목표	통일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수업 전략	교수학습모형	ICT교수모형			
교수·학습 자료	교사	출석부, 교과서, 교수용SW, 학습지			
	학생	교과서, 학습지 파일, 필기도구 등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법으로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법으로 인사한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부
	출석확인 전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확인 ■ 전시학습 확인 ○ 국가 안보의 두 가지 견해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히 상기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답을 한다. 	2'	
전개	학습목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제시 ○ 통일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해 동영상 시청하여 통일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우리나라에 새터민이 약 2만여 명 있다는 설명과 함께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오고 싶어한다고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용 SW('혜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의 일부) • 교과서 p.257 • 학습지 *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추상적 의미의 통일보다는 현실적으로 통일이 왜 중요한가를 깨우치도록 주의한다.
	학습내용 <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의미 ○ 통일의 의미 ① 남북한 동포들이 한마음으로 되어 가는 과정 ②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작업 ③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등에서 우리 민족의 삶을 하나로 묶어 완전한 한 민족 국가를 만드는 것 ④ 남북한 주민과 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 ○ 실제로 통일이란 외형적 통일만이 아닌 내면적 통합을 바탕으로 진정한 통일한국의 미래가 있음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와 교과서를 확인하며 수업에 집중하고 필요한 것은 메모한다. 	31'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필요성 <함께하기3 : 통일의 필요성 찾아 보기>를 모듈별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 민족의 참다운 역사 건설 - 한 민족간의 이해와 협동 등 - 민족의 활동 무대 확장 등 <p>■ 통일로 가는 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 ① 화해와 협력: 인도주의적 동포애, 교류 확대 ② 평화 유지: 상호 체제 인정, 평화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③ 상호 발전 추구: 인내심 요구 ○ 우리의 자세 -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함. <p>■ 동서양 고전 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구의 백범일지를 읽고 우리 민족과 통일의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 끝으로 단원 서두에 있는 김구의 “마음 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 위의 38선도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을 모든 학생이 큰 소리로 읽으며 통일의 의지를 다져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별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토의한 후 각자 주장의 근거를 적어본다 ○ 모듈별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발표하지 않는 학생은 보충할 내용을 학습지에 적는다. <p>○ 학생들은 큰 소리로 김구의 글귀를 마음에 새기며 읽는다.</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p.261 *모듈활동 시 주의가 산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모든 모듈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인다. ·학습지 ·교과서p.264
정리	학습정리	<p>■ 학습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득보다는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통일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며,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것만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음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오늘 공부한 내용을 머리속으로 정리한다. 		
	형성평가	<p>■ 형성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문항을 읽고 학생에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에 보며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고 호명된 학생은 큰 소리로 대답한다. 		
	차시예고	<p>■ 차시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회의 정치·경제 체제를 이해하고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와 교과서를 보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3) 사회과 교수·학습 과정안

다음은 사회과 특성과 수업형태에 맞는 통일교육 및 북한관련 요소를 추출, 반영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사회과 교수·학습 과정안

단 원	대단원	2. 제 2 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지도교사	2학년 ---	학습 자료	VideoTape ppt자료, 학습지
	소단원	4. 새로운 세계 질서의 수립	차 시	4 / 5		
추 천 사이트	http://www.verygoodto.kr				활용 기기	VTR, 노트북
학 습 목 표	1. 전후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학 습 단 계	학 습 형 태	학 습 내 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강의 식	공수 인사 전시 확인 학습목표확인	공수하고 인사하기 전시학습내용 확인 : 냉전의 개념, NATO, 바르샤바조약기구, 코메콘, 마셜플랜 학습목표 주지	공수하고 인사하기 교사의 물음에 답한다. 학습목표 인지	5'	학습지
전 개	일제 학습 모듬 학습	동기 유발 학습내용 전개 전후 상황정리 학습내용확인	▶한국전쟁 관련 VTR 상영 ▶한국 : 냉전 후 한국전쟁 발발 ⇒ 분단국가 ⇒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음 ⇒ 통일의 필요성 인식 ▶중국 : 승전국, 국제연합 가입,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 ▶타이완 : 국민당 정부의 경제 개발 ▶일본 : 미국의 군정, 한국 전쟁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 ▶인도 : 종교적 대립으로 분열 ▶베트남 : 공산정권과 민주 정권의 대립, 공산화 ▶미얀마 : 공산화 ▶타이, 말레이시아 : 자유 주의 정부 수립, 발전 ▶싱가포르 학습내용의 주안점을 다시 주지시킨다.	▶VTR 감상 ▶모듬별로 토의한 후 각 국의 특징을 찾아 학습지 에 요약 정리한다. ▶정리된 내용을 칠판에 적고 모듬별로 발표한다. (발표할 순서는 순서 뺐기 로 정한다.) 학습의 주안점을 재확인한다	35'	VTR 학습지 ppt
정리 및 평가	일제 학습	형성 평가 차시 학습 내용 제시	형성평가 제시 차시 학습내용 제시	학습지의 형성평가 문항 풀기 차시 학습내용 확인	5'	

4) 국사과 교수 · 학습 과정안

다음은 국사교과 특성과 수업형태에 맞는 통일교육 및 북한 관련 요소를 추출하여 반영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국사과 교수 · 학습 과정안

주 제	남북 문화 교류의 중요성		지도교사	-----	학습 자료	인터넷 자료, 학습지
			차 시	1/1		
추 천 사이트	http://www.tongiledu.or.kr/?mid=gpa_archives_main http://north.nricp.go.kr/nrth/kor/mov/mov02.jsp				활용 기기	프로젝션 TV, 노트북
학 습 목 표	북녘의 문화유산 탐구를 통하여 남북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 습 단 계	학 습 형 태	학 습 내 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일제 학습	북한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 가지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남북문화’를 글제로 4행시를 지어보자 · 북한에 어떠한 문화유산이 있는지 발표해 보자.	· 4행시를 지어서 발표해 본다. ·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발표 해본다.	8′	· ppt 자 료 · 학습지
전 개	조별 수업	북한 문화 유적에 대한 내용을 이해 하기	· 북한 문화유산을 담은 사진 이나 인터넷 자료를 제시 한다. - http://blog.naver.com/sj97in?Redirect=Log&logNo=90019468865 - http://blog.naver.com/ekumgang?Redirect=Log&logNo=90035201324 - http://blog.naver.com/ekumgang?Redirect=Log&logNo=90035169112 - http://kr.blog.yahoo.com/jheeboon/48.html	· 제시된 북한 문화유산을 담은 사진과 인터넷 자료를 본다.	10′	· 인터넷 자료
		북한 문화 유적에 대한 소감 발표 하기	· 북한 문화유적에 대해 알아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해 보자.	· 북한 문화유적에 대해 느낀 점을 조별로 알아본다. · 조별로 발표한다. - 1조 : 을밀대 , 2조 : 표훈사, 3조 : 동명왕릉, 4조 : 묘길상 마애불, 5조 : 문흥리 고인돌, 6조 : 진파리 고분과 평강공주묘	10′ 10′	· 학습지
정리 및 평가	일제 학습	문화교류의 필요성과 확대방안	· 남북 문화교류의 필요성과 확대방안을 발표해 보자.	· 남북 문화 교류의 필요성과 확대방안을 정리하여 발표한 다.	7′	· 학습지

나. 창의적 재량활동

1) 범교과 학습

학교 여건상 전교생을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초청 강연회를 녹화한 후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방영하여 그 효율을 극대화 시켰다.

2) 자기 주도적 학습

본교의 특색사업(특색사업명 : 누리마루되기 교육과정-청소년전문가 학위수여 제도)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예를 들어, 북한 학생의 여가생활 등)나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40~80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및 5~9매의 연구보고서 작성하고 있다.

다. 계발 활동

1) 통일연구반 운영

통일연구반은 분단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적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통일관련 동영상 관람,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통일의 과제, 엑스포 통일관 견학, 남북한 생활탐구, 시사 자료를 통한 토의, 남북한 문화탐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독도사랑반

독도는 인지적, 정의적으로 민감하고 이 시기에 획득한 국가 정체성은 향후 성인이 되어서 보다 성숙해지는 만큼, 독도사랑반은 독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체험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독도 알리미 및 독도의 역사 고찰, 독도의 현황 파악 등 독도관련 자료 수집,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명예대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독도 탐방을 계획(2010.8.16~8.18)하고 있다.

2. 다양한 자료 활용

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활용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uniedu.go.kr>) 「자료방」의 멀티미디어 학습자료(통일 동영상)를 활용하였다.



< 통일 동영상 관람 >

나. 인터넷 통일학교 홈페이지 활용

인터넷 통일학교 홈페이지(<http://tongil.mest.go.kr/>) 「통일교육자료」의 통일 학습자료(5분 통일교육자료)를 훈화자료로 활용하였다.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훈화 계획

1. 목적

최근 청소년들은 남북분단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또한 기성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시키고,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신장시키며,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실천의지와 능력을 갖추게 하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지고 통일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 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 나.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 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 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극복
- 마.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2. 방침

- 가. 학생들이 통일문제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
- 나. 중학교 수준에 맞는 통일교육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3. 세부 추진계획

- 가. 매주 월요일에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훈화 자료를 학급게시용으로 제공한다.
- 나. 주별 훈화자료 주제

<통일의 필요성>

- 1) 새로 맺어진 남과 북의 가족들
- 2) 남북의 다리, 금강산
- 3) 호랑이를 닮은 우리 땅
- 4) 남북 분단, 민족의 아픔
- 5) 6.25 전쟁, 그 아픈 상처
- 6) 52년만의 만남
- 7) 참다운 한민족이 되는 길
- 8) 가까워진 서울과 평양

<북한 사회의 이해>

- 9) 북한에서는 설을 어떻게 지낼까
- 10) 북한, 선거를 어떻게 하나?

- 11) 북녘 동포, 그들의 의식주 생활
- 12) 관혼상제, 어떻게 하나
- 13) 북한의 학교와 학생들
- 14) 북한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하루 일과
- 15) 영화, 연극 그리고 음악
- 16) 인기 있는 북한 가요
- 17) 북한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문학작품
- 18) 북한에서도 영어를 배울까
- 19) 북녘의 문화유산을 보고 와서
- 20) 변화하는 북한 사회
- 21) 먹구름 뒤에 햇볕
- 22) 북한, 인기 있는 운동 경기, 소년체육대회
- 23) 단합과 단결의 농구팀

<화해와 협력>

- 24) 민족의 화해를 위한 약속
- 25) 우리를 지키는 길
- 26) 함께 사는 연습
- 27) 분단을 넘어 평화 공존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28) 서로 힘이 되는 남북한 만들기
- 29) 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
- 30) 통일 이후 우리 삶의 모습
- 31) 통일 한국의 위상
- 32) 높아질 경제적 효과
- 33) 통일의 기초를 다진 남북한
- 34) 시드니의 꿈과 희망
- 35) 신의주를 향해 출발

다. 학급 통일교육 게시판 운영

통일·북한관련 자료 및 학생이 제작한 작품을 학급 게시판에 부착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 학급 통일 게시판 >

3.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가. 통일문화 체험

1) 통일염원 편지쓰기, 그림 그리기

남북분단의 장기화로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가 점차 이질화되어가고 있다. 비록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편지이지만 자신이 쓴 편지가 북한의 또래 친구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북한 친구에게 편지쓰기는 같은 또래의 학생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북한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임을 알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또한 통일을 기원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북녘의 친구에게

친구야,
 바람에게 북녘의 소식을 물어보았어
 아직은 번역스러운 봄바람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지만 언젠가 이 바람처럼
 빠르게 우리가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어며 미소지을 수 있겠지
 그 날을 그리며 다시 한 번 너에게 안부를 전래 본다.
 사울은 이름도 나이드 모르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대부분 친구끼리 이동전화로
 이용해 문자를 주고 받거나 컴퓨터로 대화를 주고 받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일은 거의 없거든.
 그렇지만 그런 어색함 속에도 왠지 포를 살레함이 느껴졌어
 너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나 역시
 너의 소식을 기다려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 때문인지도
 모르겠어.
 친구야,
 너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너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도 나는 꿈을 꾴.
 그리고 너는 어떤 꿈을 그리고 싶을지도 생각해 본다.
 나는 꼭 의사가 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의사의 꿈을 꾸기도 하지만, 나는 그보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의사함을 지닌 그런 의사를 꿈 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거야.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나 자신과 싸워 관계를 넘어서야 하고 공부도
 잘 해야 하거든.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 잠시 주춤거리다가도
 나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내 꿈의 빛을 상상하곤 해.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이나 힘들음이
 조금씩 풀어져 사라져버리는 거야.

morning glory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가 되고 만남의 기쁨 속에 밀사안게 될
 꿈도 그만큼 한 발자국 우리 앞에 가깝게 다가 설 수 있는 것이
 될테니까.
 친구야,
 이렇게 불려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한 핏줄이기
 때문이겠지. 너의 이름과 학교와 너의 생활이 알고 있고, 너의 꿈과
 생각도 궁금해지는 것 역시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일거야.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불러보고 싶은 이름은 너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펼쳐 놓아도 다스라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것도 역시 너와 내가 한 형제이기 때문일거야. 미래의 어느 한 시간의
 찰금에서 꿈을 이룬 너와 내가 만나서 시원한 웃음을 주고 받으며
 좋아하는 음식 얘기, 짝 이야기, 여자 친구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사눌 수 있는 것도 모두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일거야.
 친구야,
 오늘도 바람이 분다.
 학교 운동장 가득 새리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학교와
 교실을 상상해 본다. 지금은 이렇게 바람결에, 구름 곁에 너의 소식을
 물어보지만, 조금 먼 미래에는 우리가 만나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며 두 손을 잡을 수 있겠지.
 그 날을 그리며 우리 오늘도 함께 웃어보자.

2010년 4월 6일
이 설 민

morning glory

< 통일염원 편지 쓰기 >



< 통일 그림 그리기 >

2) 통일기원 과학 경진대회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과학주간' 행사를 통일교육과 연관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심어 주었다. 글라이더, 고무 동력기, 로켓 발사 등을 제작할 때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날리도록 하였다. 골든벨 사이언스 행사는 과학상식과 함께 통일 관련 내용을 삽입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 통일기원 과학 경진대회 >

3)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관 견학(2학년)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관은 전쟁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전쟁 당시의 막사 재현, 사진, 의복 등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영화도 부분적으로 제작하여 상영하고 있다. 자칫 잘못 보면 무슨 평화공원같이 보이지만, 수용소안에서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해방의 기쁨에 열심히 농사지으며 평화롭게 살다가 북한의 전쟁광들에 의해서 강제 차출된 북한의 어린 젊은이들이 6.25전쟁 와중에 포로가 되어 이곳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된 사연도 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유적관을 관람하면서 전쟁의 폐해를 느끼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관 >

4) 통일전망대 견학(3학년)

통일전망대는 금강산 육로관광의 길목에 위치하여 남북협력과 교류의 장소로 그 의미를 새롭게 하였고, 두고 온 부모형제와 산하를 그리워하는 실향민에게는 아픔을 달래주는 마음의 고향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분단의 현실을 깨우치게 하였으며, 외국인에게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산 교육장이며 체험장이다. 이에 우리학교 3학년 학생들은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통일의 염원을 다진 제1의 통일안보 교육장인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전망대를 견학하였다.



< 통일전망대 >

5) 국립대전현충원 견학

나라사랑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영면하는 안식처이자 민족의 성역인 현충원에서 학생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자연스럽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토록 학생참관교육(현충원 참배, 호국영화 관람, 보훈미래관 유품 관람, 야외전시장 육·해·공군 실물 전투장비 관람, 묘소참배 및 묘소돌보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 국립대전현충원 >

6) 통일염원 글짓기 대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시와 산문으로 표현하여 표현력 향상과 더불어 통일 의지를 함양하고자 통일이라는 소재로 제목과 형식은 학생 스스로 정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 자신의 통일의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교내 학생통일글짓기대회◎
(2)학년 여학생(김태민)

◆ 제목 : 원리음

꿈 같은	평안함	(미래, 한국)
평안함	달라진	
같은 꿈	같은 꿈	
되나	바뀌고	
우리의	반영된	
미래는	어떤것	
가장이나	보통은	
변화나	없다	
전자의	내용	
꿈이	꿈	
현실의	또한	
재미 있다	나유 있다	

비둘기

3학년 박재민

1950년 6월 25일 우리의 비극은 시작됐다. 서로의 가슴에 울음 겨누는 무차별한 공격과 한 민족이었던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비열하고 비참하게 비극이 시작됐고 거대한 참사 전쟁을 겪고 있다.

나는 일이 진 가지면에도 통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었다. '통일이 무슨 소용인지' 통일을 하면 우리 남반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텐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박이 땅을 떠나온 후 또 통일 교육을 받은 후에는 통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수박이 땅을 판문점으로 왔는데 판문점에 관한 사권교육을 학교에서 받았다. 판문점에 대해서 통영상을 보았는데 경비가 매우 삼엄하면서 무섭고 긴장됐다.

막상 도우면서 판문점행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난 상별함을 느꼈다. 도미던 땀 사진 들어오지 않는 다리 등을 보고 우리는 왜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또 유일하게 군사분계선이 없는 곳을 들어가서 매우 기쁘다. 내가 북한의 땅을 밟아 볼 수 있다는 감사와 함께 북한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무섭고 심복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는 북한 군인이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엄청 무서웠다. 그래도 휴전협정 이후에는 경계가 찾아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곳이 있고, 그곳의 경계는 상별하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실감해 보니 통일이 될 날이 아직도 멀지만 반 기쁘다.

그리고 통일교육과정 학교로 정해지면서 우리는 통일교육을 최소 2주일에 한번은 받는 데 비록 1시간 밖에 안 되는 짧은 통일교육시간이지만 통일교육을 받으면서 통일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본래 한 민족이었던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에 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통일에 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 남반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것 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휴전상황이고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 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많이

< 교내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 작품 >

나. 학생통일교육 연수

1) 맞춤형 북한실상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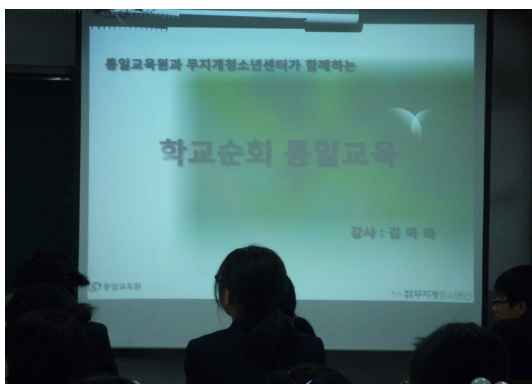
2010년 4월 2일 1학년 7반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통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서실에서 북한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새터민 조민희 선생님의 특강이 있었다.



< 맞춤형 북한실상 교육 >

2)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2010년 4월 21일 2학년 8반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후원을 받아 무지개청소년센터 남북통합지원팀의 김미라 선생님의 특강이 있었다.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

3) 청소년 통일교육

2010년 6월 7일 2학년 1, 2, 9반 학생을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서구협의회의 탈북자 김영옥 선생님의 특강이 있었다.



< 청소년 통일교육 >

IV. 기대 효과

본교는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통일의식 제고'라는 주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효과를 기대한다.

1. 관련 교과, 창의적 재량활동, 계발활동 시간에 남북한과 관련된 주제를 추출한 통일교육으로 북한 현실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2. 통일부, 통일교육원, 각종 기관 및 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통일교육 UCC 제작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3. 통일문화 체험, 분단현장 방문, 북한이탈주민의 강연회를 통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 및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4. 대북정책과 통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가 형성되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비전이 공유·확산될 것이다.

5. 학교 통일교육으로 분단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적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6.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통일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길러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

< 참 고 문 헌 >

- 오기성, 도덕과 통일교육에 있어 사회문화적 접근(한국국민윤리학회지 제57호), 2004
- 차우규, 통일교육의 방향과 교수기법, 2005
- 통일부,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2001
- _____,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2005
- _____,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2008..
- _____,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2008
- _____, 2010 통일문제이해, 2010
- _____, 2010 북한이해, 2010
- _____, 2010 통일교육지침서, 2010
- _____, 2007년도 통일교육 운용계획, 2007
- _____, 2009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충북), 2009
- _____, 2009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충남), 2009
- _____, 2010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전북), 2010
- 금정여자중학교,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부산광역시교육청지정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2001
- 김천여자중학교,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경상북도교육청지정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2002
- 태안중학교, 사이버 통일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신장(충청남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2003
- 가덕중학교, 북한 바로알기 교육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충청북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2004
- 대전만년중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정연구학교 운영보고서, 2008

□ 부 록 □

1. 실태분석 설문지(학생용)

[1] 친구들과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2] 북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주된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 ① 학교 교육 ② 탈북자의 강연
③ 각종 매스컴과 언론 매체 ④ 기타

[3]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야는?()

- ① 정치 ② 경제
③ 사회·문화 ④ 종교·예술

[4] 남북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하면 좋다. ② 안돼야 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관심 없다.

[4-1]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문항4번

- ① 응답자]()
- ① 세계 평화를 위해 ② 경제적 이익이 더 커지므로
③ 전쟁 불안에서 벗어나므로 ④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므로

[4-2] 통일이 안돼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문항4번

- ② 응답자]()
- ① 사회 범죄가 급증하므로
② 통일 후 정치적 혼란이 크므로
③ 경제적 후진국으로 전락하므로
④ 사회 복지 및 후생 사업이 축소되므로

[4-3]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문항4번

③, ④ 응답자]()

- ①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으므로
- ② 개인적으로 다른 일 때문에 바쁘므로
- ③ 나에게 득이 되는 일 같지 않으므로
- ④ 내가 사는 동안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5]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은 민족이다.
- ② 우리의 적이다.
- ③ 경계의 대상이다.
- ④ 다른 나라 얘기라 관심 없다.

[6] 남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거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7]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거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8] 가장 좋은 통일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한이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흡수하는 방법
- ② 기존의 남북한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방법
- ③ 남북한의 체제를 각각 유지하면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는 방법
- ④ 기타

[9] 통일 이후에 나타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적 문제
- ② 경제적 문제
- ③ 사회적 혼란
- ④ 문화적 이질감

[10] 통일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 원조
- ② 국방 안보 강화
- ③ 민족적 이질감 극복
- ④ 남북한의 동포애 자극

[11] 통일이 된다면 언제쯤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① 10년 이내 ② 20년 이내 ③ 30년 이내 ④ 잘 모르겠다.

[12]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필요 없다. ④ 상관없다.

[13]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과 교육활동 ② 현장 체험학습
③ 전문 강사 초빙 강연 ④ 통일 관련 홈페이지 활용

[14] 현재의 통일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 그대로가 좋다.
② 좀 더 국가 안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④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이 병 각
대전용전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이 병 각(대전용전초등학교 교사)

- I. 들어가며
- II. 현행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 III.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IV. 맺으며

I. 들어가며

올해는 우리 민족분단의 아픔인 6.25전쟁이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분단 이후 우리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 결과 지난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이에 따른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대립과 긴장 및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 및 평화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그 후 여러 분야에서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증대되었고 통일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적인 핵 도발과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천안함 사건은 남북을 다시 냉각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통일은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이며,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제 가운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는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와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은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며,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에 관해 내면화된 것이 부족하다.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은 통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며 통일 상황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남북한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여 민족화합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통일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통일교육은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학교 통일교육을 초등학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현행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는 교육과정 측면과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측면

가. 통일교육이 특정 교과목에만 편중 실시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가치 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 교과서가 따로 없고, 기존 통일교육 목표에 합당한 교육 과정이 '바른생활'과 '도덕'과 같은 특정 교과목에만 편중 실시되어 기대하는 성과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덕과의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초등 도덕 교과서의 통일교육 내용 분석

학 년	지 도 내 용
3학년	나라의 상징과 나라사랑,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4학년	우리나라·민족에 대한 긍지,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5학년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6학년	편견 극복과 관용,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화로운 세상

이러한 내용체계는 학생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통일교육 내용에 있어 범위와 계열성을 달리하여 구성하고 있으나 학년별 1단원 3차시에 불과

하고, 학교 통일교육은 교육내용에서 민족공동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교과 간에 밀도 있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나.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시간의 부족

통일교육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덕과 수업시수(주 1시간)가 너무 적다.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을 1년에 몇 시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모두 소화해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시간이 적다보니 당연히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재량활동 시간(68시간)은 전 학년 교과 및 재량활동 시간에 성교육 10시간 이상, 안전교육 23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2시간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ICT교육 34시간, 5-6학년은 보건교육을 17시간 이상 재량활동시간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여타 정책교육기관이나 시책에 의하여 재량활동 시간에 시수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 일선에서 통일교육을 순수하게 지도할 시간이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다. 통일교육 지도시기가 학년말에 치중

통일교육과 관련된 단원은 교과서의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 단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비단 학생들의 집중도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학이나 졸업을 앞두는 시기에 다루어지기 때문에 교사 또한 수업을 간단하게 마치게 된다.

라. 강의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 치중

초등학생들의 학습 단계가 시간과 공간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분단에 대한 역사 인식이 가능한 시기는 적어도 4학년 이상이 되지 못하면 추상적인 이해의 수준에서 그치기 쉽다. 그런데 그동안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개방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강의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 치중되어 왔다. 또한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과 자료 개발 등이 미흡하고, 언론이나 가정 등 다른 사회 교육매체와의 연계대책도 미흡하다. 즉,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교수 학습방법, 개방적 토론,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육과는 동떨어진 교육

학생들은 새로 배우는 학습내용이 학생 자신이 궁금해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게 해 주고, 그들의 관심사나 가치와도 관련이 되고, 그들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학습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된다. 요즘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라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어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하나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통일의지의 함양과 같은 인지적·정의적 학습 경험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나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기회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2. 교사의 전문성 측면

가. 통일관련 교사 연수의 부족

교육요소란 학생, 교육과정,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교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 및 사회에서 계획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수준이 교사에게 달려 있다. 이는 통일교육적 차원에서 교사의 역할에 따라 통일교육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통일교육은 교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교사 스스로 통일교육을 잘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은 교사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통일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연수를 다른 연수보다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행·재정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나.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 부족

학교에서 통일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열정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각 학교마다 6월에 있는 통일 글쓰기, 그리기, 웅변대회 등의 학예행사

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년별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충분히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이 시급하다. 앞에서 말한 연수 프로그램 이외에도 통일교사 연구회나 교사동아리처럼 전문적으로 통일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류활동을 하는 기구들이 적다. 그리고 교사들도 최근의 통일 정책이나 정치적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무감각한 편이다. 통일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워크숍, 대표자 간담회, 공동 심포지엄 등 정부와 민간 사이의 정책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 배려를 해야 하나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Ⅲ.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주로 통일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인 교육과정 측면과 교사의 전문성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교육과정 측면

가. 범교과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통일교육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교육 관련 수업시수는 도덕과에서 1년에 3시간으로 효과적인 통일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교과 시간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범교과적 차원에서 통일교육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 비해 범교과 학습영역을 34개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학교자율화 조치가 시행되고 특별활동 영역 구분이 없어지는 등 점차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어느 범교과 영역보다 시사성이 강한 통일교육 관련 시수를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의 실시가 필요하다.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은 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 교과가 그 주제에 맞추어서 전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통합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또한,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부분이 시간을 요하는 장기적인 부분이라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교과를 초월해서 통일만을 위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재량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통일교육을 위한 시간만 확보된다면 작년(초등학교 5,6학년용)에 이어 올해(초등학교 3,4학년용) 배부된 통일교재(「통일」 서울시교육감 인정도서)와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학년에 맞게 주제에 따른 내용요소를 추출하고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나. 통일교육의 시기 조정

통일교육의 시기를 학년말에서 학기초나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먼저 통일 교육에 관련된 단원을 교과서의 맨 앞에 배치하면 학생들이 새 학기에 대한 설렘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충만할 뿐 아니라 교사의 각오 또한 학기말과는 달리 계획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충일, 6·25 등이 있는 6월에 계기교육과 연계하여 통일 관련 내용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차시를 변경하여 지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발표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용전초등학교의 6월과 관련한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전용전초등학교는 현재 호국보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라사랑 지도내용을 추출해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북한실상 교육(탈북자 초청)



▲ 명사초청 통일교육 강연회



▲ 통일 안보 학예대회



▲ 나라사랑 관련인물 포토존



▲ 만세운동 체험(태극기 휘날리며)



▲ 6.25 피난체험 걷기(주먹밥 먹기)

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활자보다는 영상이나 컴퓨터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강의 중심의 주입식 방법에만 치중하지 말고 토론식 수업과 탐구 중심의 연구주제에 대한 조사학습을 통해서 많이 알게 하는 것보다 많이 생각하게 하고, 많이 공감하게 하는 통일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표 2>는 학생들이 통일에 관한 보다 다양한 문제를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주제이다.

<표 2> 탐구 중심 통일교육 연구 주제(예시)

탐구 중심 통일 교육 연구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비한 지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 ▶ 통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통합 영역의 문제들 ▶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통일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 ▶ 한민족과 공동체에 대한 내용 ▶ 통일에 따른 시민생활의 변화와 야기되는 가치관 혼란에 대한 문제 ▶ 더욱 좁아지는 지구촌 세계에 대한 인식(다문화사회)
----------------------------------	---

또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수업기법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플래시 애니메이션, 웹카툰, 게임 등을 활용한 사이버 통일교육 또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사이버 교육 자료를 접하게 하되, 교육효과를 기대하려면 면밀하게 짜여진 전·후 학습활동을 통해 교육자료 안에 담겨 있는 주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초등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 담긴 내용을 능동적으로 생각해보고, 자기화할 때 자칫 수동적 학습에 머물기 쉬운 사이버 교육의 약점이 보완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즉 이념이나 체제 또는 사상과 같은 추상적인 소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 문화, 관습, 가정생활과 가족 관계 또는 자연 지리나 관광자원 등을 소재로 해야 한다. 황은실(2009)이 제시한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북한의 학생의 학교생활, 무엇을 배우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 통일 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남북한의 이질화된 남북한 언어 차이 학습 등에서 퀴즈 및 역할놀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실연해 보거나 남북한의 공통어 찾아보기 및 같은 단어이면서도 남북한 간에 의미가 전혀 상이한 언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통어를 만들어 보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통일 문제에 공감하게 한다.
- ◇ 자유를 찾은 어린이들과의 직접적인 대화, 또는 편지쓰기 등 그들의 생활을 함께 느껴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게 될 것이다.
- ◇ 통일 캠프 및 현장 체험학습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르게 한다. 수업 시간에 통일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운다고 해서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으로 북한과 통일을 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통일교육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때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게 되며 통일이 우리들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인혁(2009)이 제시한 체험학습 중심의 초등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서적 접근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흥미를 북돋우는 접근이 필요하다. 즉, 초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통일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 예컨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의 경기력 상승, 북한에 있는 고구려의 문화 유적 탐방, 북한 지역으로의 여행뿐 아니라 경의선을 통한 유럽 배낭여행도 가능한 점 등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이점을 강조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민족의 분단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언어와 역사,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북한의 위치와 상징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국제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 분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나아가 한 민족으로서 통일을 희망하고 이루려는 마음과 통일 의지가 내면화될 수 있어야 한다.
- ◇ 학생들의 통일실현 의지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어린이회, 축제,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 특별활동과 학교 행사, 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통일교육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 학생들의 활동의 장인 계발활동은 통일문제를 학생들의 관심사로 끌어 들여 일상생활에서 체험과 실천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능동적인 계발 활동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유발을 할 수 있으므로 통일 관련 시사반, 통일반, 신문반, 방송반, 연극반 등과 같은 계발활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 ◇ 학교 행사에서는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통일가요제, 통일 축제, 통일 사이버 문예대회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 ◇ 어린이회를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북한이탈주민 가족 돕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북한주민을 한 민족이자 이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 현장 체험학습 활동으로 분단의 상징적 지역이나 통일의지를 다질 수 있는 장소 즉, 남북출입사무소, 판문점, 통일전망대, 비무장지대(DMZ), 통일관 등을 견학 하도록 함으로써 분단이나 통일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 학생들의 수련활동도 단순히 심신수련의 차원을 넘어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교과교육 차원에서 담아내기 힘든 통일교육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2. 교사의 전문성 측면

가. 통일교육 직무연수 확대

통일교육은 교사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많은 교사가 통일에 대한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인 경우에는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영어, 컴퓨터, 상담, 과학실험 연수 등 받아야 할 연수가 많아 통일교육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므로 통일교육 연수에 대한 유인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부와 각 시·도연수원에서도 통일교육 직무연수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사이버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교육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통일교육 관련 활동의 지원과 활성화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교육자료이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육 시범학교와 각종 세미나, 통일교육 관련 교과연구회나 교사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개발된 통일교육 자료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 교사의 통일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들 또한 스스로 자신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문성 신장을 위해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수와 세미나, 교사동아리 활동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지방자치단체, 민간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프로그램도 학교교육과의 연계선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통일교육 단체마다 그 활동 형태와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르겠지만 적극적인 단체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통일교육 수업활동에 컨설팅을 하거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IV. 맺으며

분단된 조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통일’은 민족사적 최대의 과제이며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더욱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지를 심어주는 교육은 그 어느 교육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현행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실제 수업시수의 확보가 관건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학습 자료나 미디어, 그리고 교수 학습방법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통일수업을 교사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강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소재를 중심으로 학교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맞물려 새롭고 효과적인 통일 교수 학습방법을 찾아내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통일교육 직무연수 기회의 확대, 각종 세미나와 교과연구회 활동 등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통일은 일시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통일 문제를 학습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참 고 문 헌>

- 김경자,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2009.
- 김영식, 범교과적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2009.
- 안인혁, 체험학습 중심의 초등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2009.
- 안효팔, 초등학교 학교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모색, 2008.
- 통일부, 통일교육 지침서(학교용), 2010.
- 한국통일교육연구회, 초등학교 통일 교사용 지도서(3, 4학년), 2010.
- 황은실,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 모색, 2009.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 현 호
대전둔산중학교 교사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담론

최 현 호(대전둔산중학교 교사)

- I.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고찰
- II.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III. 통일교육 교수-학습과정안 사례
- IV. 결 론

I.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고찰

1.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과거 우리의 통일교육은 다양한 명칭아래 교육을 실시하여 왔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은 사회주의의 우월성만을 강조하여 상호대립적인 이데올로기 교육만을 강조하여 왔다. 한편, 90년대 후반부터 우리의 통일교육이 조금씩 변화되어왔으며, 2000년대에는 좀 더 진일보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성이 부족한 통일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이다.

둘째, 통일관련 과목의 시수 축소 문제로 계열성과 계속성이 부족하였다.

셋째, 현실성이 결여된 지나친 감상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지향의 통일교육,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추상적이며 규범론적인 접근법만을 사용하여 왔다.

넷째, 통일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무관심 및 냉담한 입장 그리고 부정적 영향이다.

다섯째, 안보 위주의 소극적 통일교육이다.

여섯째, 통일교육 내용의 부적절성과 방법론의 낙후성이다. 통일교육은 단지 북한 현실을 일부분만을 알리는데 주력하여 왔다. 이것은 전체론적 종합적 시각을 갖는데 한계성을 주었다.

일곱째,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진부한 각종 학교행사이다. 교과활동과 교과 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관되어야만 지속적인 통일교육이 가능하다.

여덟째, 통일교육 교사 연수기회가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하에서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국민적 합의 조성에 일조해 왔다. 최근 들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통일무용론이 퍼지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반통일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교과부에서는 학교 통일교육의 실천적 과제로 ‘객관적 북한 이해를 통한 남북관계 이해능력 제고’,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간 이질성 극복’,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극복’,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교육목표는 결국 청소년 통일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새로운 통일교육의 접근 방향

	1990년대까지 -체제우위의 접근방향-	2000년 현재 -평화공존의 접근방향-	향후 통일교육 방향 -평화안보 융합적 접근 방향-
기본방향	안보·통일지향 : 안보와 체제우위 확인	화해·협력 지향 : 평화공존과 협력 추구	안보·화해·책임지향 : 약속 이행과 실천, 상호주의
통일지향	정치·제도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정치, 군사, 사회문화적 이해와 현실적 한계 파악
교육목표	안보·체제우위·통일 지향	상호이해·협력·공동체 지향	책임과 의무에 입각한 남북한 통합 지향
교육주체	정부 주도	정부·민간 협력체제	책임 있는 정부주도와 민간의 분별 있는 통일논의와 실천
교육내용	○ 체제·이념중심 ○ 남한의 비교우위 강조 ○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 생활문화 이해 ○ 남북한의 객관적 비교 ○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 체제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 ○ 상호 이해력 강조 ○ 통일을 이성적으로 준비하기
교육방법	○ 일방적 전달 ○ 제한된 정보 자료 ○ 수동적 참여	○ 개방적 토론 ○ 다양한 정보자료 ○ 능동적 참여	○ 개방적 토론의 책임성 강조 ○ 다양한 정보의 분별 및 수렴 ○ 능동적 참여와 인내심 요구

2. 통일교육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

가. 통일관련 수업에 대한 설문

초, 중,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설문조사(2003) 및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2003)의 통일교육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관련 수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13.7%, “비교적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27.7%,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5.6%,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17.4%,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관련 수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통일관련 수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과 “비교적 관심이 있다” 응답을 합친 것)이 초등학생인 경우 56.8%로 중학생인 경우 36.8%, 고등학생인 경우 25.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인 경우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통일관련 수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관련 수업에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교과서 등 교육내용이 재미없어서”라는 응답이 31.4%, “수업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7.4%, “시험에 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4.3%, “국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7.0%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관련 수업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 교과서의 내용과 수업방법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인 경우 20.6%, 중학생인 경우 28.2%, 고등학생인 경우 46.8%가 “교과서 등의 교육내용이 재미없어서”라고 응답한 반면, 초등학생인 경우 41.8%, 중학생인 경우 42.3%, 고등학생인 경우 26.7%가 “수업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통일관련 수업에 관심이 없는 이유를 초·중학생은 수업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은 교과서의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분석결과 통일교육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관련 교과서에 내용을 반영”이라는 응답이 49.9%, “특별활동(클럽활동, 단체수련활동) 시간 활용”이라는 응답이 6.2%, “재량활동시간 활용”이라는 응답이 15.3%, “체험활동”이라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련교과서에 내용을 반영”과 “체험활동”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나. 통일의식 조사에 대한 설문

2004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한 『통일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응답이 37.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0.8%,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32.6%를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취약한 편이며,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경제난 속에 허덕이는 실패한 체제라는 인식이 깔려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 50.4%, 인터넷이 16.7%로, 교과서 및 기타 서적이 12.8%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교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통일에 대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4.5%로 나타났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3.5%로 나타났다. '통일이 안 된 것은 어느 나라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53.0%, 북한이 14.7%, 남북한 모두가 12.3%, 일본이 7.2%라를 응답을 보였다. '기회가 된다면,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9.5%가 있다는 응답을, 18.5%는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통일 후 북한에 거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69.6%, 있다는 응답이 30.4%를 보였다. '북한 동포 돕기 모금활동이 있다면 용돈을 모아 기부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43.0%,,, 있다는 응답이 33.6%를 보였다. '통일 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떨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5.1%를 보였고, 통일 후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8.5%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 후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가 38.9%, 이념적 차이 26.4%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서로 상충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오기성 교수(2006)는 말한다. 즉,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과 북한에 거주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과 북한 동포 돕기 모금활동이 있다면 용돈을 모아 기부할 용의가 없다는 응답, 통일 후 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과 통일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은 일견 모순된 답변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학습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의 약화이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실효성 문제이다. 또한 북한을 실패한 체제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체제에 대한 우월감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을 열등한 체제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Ⅱ.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청소년 눈높이 통일교육론 -

1. 청소년 눈높이의 통일교육에 대한 전이해(Preunderstanding)

‘전교조’ 전국 중·고생의 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2003, 전국 2000명)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라는 항목에 북한의 지도자(13.6%), 북한의 정치·사회·사상(10.6%), 북한주민의 생활모습(32.1%), 북한의 문화·예술(10.2%), 북한교육과 학교생활(16.8%), 북한의 통일정책(9.3%) 등이었으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http://www.kcrc.or.kr>)’ 청소년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보고(2000, 전국 중·고생 1500명)에 따르면 “북한 학생들과 컴퓨터 채팅을 한다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은?”라는 항목에 학교생활(29.1%), 가족관계(3.6%), 이성관계(18.3%), 취미생활(14.8%), 통일문제(19.7%) 등이었다.

두 곳의 설문조사 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통일교육이 이념적, 규범적 측면보다는 일상생활 모습, 학교생활, 이성관계 및 취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통일교육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청소년의 눈높이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아직은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의 혼재, 특히 북한주민이나 학생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 북한을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시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유념해야 할 측면은 남북한 사회문화적 동질적 요소는 무엇이며, 그 속에서 같음(동질)과 다름(이질)을 이해하는 교육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과 북이 50여 년 동안 상이한 이념과 체제 속에서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 왔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남과 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기뻐할 줄 알며, 이를 토대로 포용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대부분 우리는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논할 때 ‘전통적 측면에서의 동질성과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이라는 단순 논리에 의거하여 왔다. 그러나 전통적 측면에서만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통합에 저해되는 것도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같음은 사람간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다름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여기에 통일교육에서 같음과 다름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단초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능력이 함양되어야 민족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다. '같음'과 '다름'의 수평적인 차이는 남북이 통일이 된 후에도 서로를 인정하는 배려 윤리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이자 태도이다. 따라서 서로 같음과 다름을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의 형성은 통일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길이다.

2. 청소년 눈높이의 통일교육 내용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 환경변화와 세대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되, 추상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통일교육, 당장의 통일을 '꿈꾸는' 당위론적 통일교육 보다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각종 설문조사와 통일교육 시범학교 보고서를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이나 또래 청소년들의 생활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까?, 개학과 방학은 언제일까?, 시험은 어떻게 치를까? 유급이나 퇴학이 있을까?, 과외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의 특수목적고와 같은 특수한 학교가 있을까?, 수능 시험이 있을까? 재수생도 있을까? 속칭 인류대학은?, 서태지와 같은 10대 스타가 있을까? 오빠부대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을까?, 서구식 문화가 유입되고 있는가?, 노래방은 있을까?, X세대가 즐겨보는 만화영화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을까?, DDR이나 게임방이 있을까?, '왕따'나 '공주병'이 있을까?, 헤어스타일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식적·추상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이러한 청소년들 주변의 일상 생활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현재 남한 중등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기초로 영역별로 구성을 하여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통일교육 내용

영역	통일교육 내용 항목
1. 북한의 자연과 전통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중국 및 소련과의 국경선에서의 관계는? · 홍수피해와 산림과의 관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관광지와 명산 및 명소는? · 온천과 약수는? · 고유명절과 명절음식이 있는가? · 북한에서의 최대명절은? · 북한의 민속놀이는? · 관혼상제(결혼, 회갑, 장례, 제례)는? · 북한의 유적과 유물은? · 북한의 국보1호는? · 북한에서 단군릉의 의미는?
2. 북한 사회의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사후 시신은? · 장기집권이 가능한 이유는? · 북한 핵개발은? · 북한의 인권은? · 우리와 같은 백화점은 있는가? · 시장과 장수는 있는가? · 귀순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 여성의 사회진출도와 지위는? · 직업의 종류와 선호되는 직업은? · 주민이 주로 먹은 음식과 좋아하는 음식은? · 북한에서 달리 즉 외화의 가치는 그리고 활용도는? ·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하며, 원조된 쌀은 실제로 주민에게 배급되는가? · 북한의 화폐단위와 우리돈과의 가치비교는 어느정도인가? · 외부사정에 대해 주민은 얼마나 알고 있나? · 주민들은 어떻게 분양받고 어떤 집에서 사는가?
3. 북한의 청소년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은? · 학교의 교과목과 특별활동은? · 청소년 하루일과는? · 북한의 학교제도와 진학은 어떻게? · 청소년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은? ·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은? · 방학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지내나? · 북한에도 소풍, 운동회 체육대회, 수학여행이 있는가? · 북한의 식생활 주식과 간식은? · 북한 청소년의 체력은? · TV 보급률과 프로그램? · 북한에서 유행하는 유행가(대중가요)는? · 북한에서의 영화의 종류와 유행하는 영화류는? ·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문학작품은?
4. 통일과 통일 이 후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표준어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남북 이산 가족수는? · 남북한이 한민족임의 요소들은? · 통일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 통일과 주변강대국과의 관계는? · 남북한의 경제적, 인적교류 그리고 성과는? · 식량지원의 성과는? · 외국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했나? · 통일대비 예산이란? · 통일국가의 모습은?

3. 청소년 눈높이의 통일교육 방법

통일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의 도출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 즉 현재 청소년 세대의 사이버 특징과 여론조사에서 기인한다.

첫째, 몇 년 전부터 각 가정이나 학교의 정보화운동으로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었고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확산되어 왔는데, 최근에 PC방의 급속한 보급으로 60% 이상의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다. 10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친구관계, 정보검색, 문화 예술 참여 등의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요즘의 청소년은 PC통신과 인터넷을 즐기며, 자기

중심적이고, 어떠한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잘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또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책보다는 인터넷, 편지보다는 E-Mail, TV보다는 컴퓨터에 친숙한 사이버 세대로 자율성이 강하다. 이들의 특징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원하고 강요받는 것을 싫어하며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재 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수요자인 학생들의 학습욕구에 맞도록 자발적인 참여로 끌어낼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법은 사이버교육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여론조사이다. '전교조'는 2000년 7월 20일 전국 중고생의 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전국 2000명 대상)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획득은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질문에 교과서나 선생님(24.7%), 신문이나 라디오(48.1%), TV (87.7%), 주변어른(7.6%), 인터넷(9.9%) 등이었으며, 1997년 2월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 교사모임' 설문조사(중학생 171명 대상)에서는 TV·라디오(66.8%), 신문(15.6%), 학교수업(9.4%), 주변 어른(5.5%) 등이었다. 이들 설문조사 합의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일교육의 수업방법은 다음과 같은 수업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 신문(NIE) 또는 전자신문(DNIE) 활용 수업모형

시사자료 활용수업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신문의 통일교육 관련 기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NIE(newspaper in education)란 방법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업은 DNIE(전자신문 활용 교육=Digital Newspaper In Education)이다. 이 두 가지 활용수업은 실생활과 밀접한 학습이면서도 사이버세대의 개성에 맞는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반도 상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통일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내용과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사 자료의 활용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북한주민의 생활, 북한학생들의 생활, 가족관계 등과 같은 소재들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신문에 나타난 최근의 이 같은 자료들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상당히 자극할 것으로 보여 수업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분단에서 오는 사회, 경제, 문화적 손실과 낭비, 인간적인 고통 등에 관한 내용이나 북한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의

신문에 실리곤 하는데 이들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 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토의식으로 진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일정한 학습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자료들을 학생들이 수집한 다음 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NIE 학습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는 가장 시사적이고 현장적인 학습 자료의 활용 가능성, 최신정보와 뉴스로 교육과정의 낙후성을 보완하며, 사진 통계자료·삽화 등 다양한 학습정보의 취득이 가능하고 사회현상 이해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집단적 사고 고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자료 활용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여 통일교육 관련내용을 영역별로 범주화한다.
- 둘째, 자료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연간계획서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 셋째, 전체, 개인별, 집단별로 수집과제를 부여한다. 이때 시사기록장 또는 스크랩북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넷째, 수업시간에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

나. 컴퓨터 활용 수업모형

컴퓨터 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하여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개방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공동 주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문제해결의 과정 자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집단 탐구식 수업모형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일정한 가치를 내포하고 학습자들에게 제시된다는 점에서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치주입식 수업 도구로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의 장점은 컴퓨터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의 활용에서 꼽을 수 있다.

- 첫째, 프로그램에 활용된 동화상, 그림, 음향효과 등은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학습동기를 높인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시각정보와 청각정보의 적절한 결합은 학습효과를 높인다. 시각정보의 청각정보의 동조성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적절히 동조되었을 때 학습효과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 둘째, 개별학습자의 요구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서 학습의 개별화 효과를 높인다.
- 셋째, CD-ROM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

으로 탐색할 수 있어서 정보의 수집과 분류, 정리를 통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넷째, 개별 학습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저장하고 분류하며,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가능하여 개별적 처지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런 기록은 추후 지도와 복습 등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여러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은 미래의 교수방법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은 학업성취도의 향상과 학습 시간의 절감 면에서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즉 학습의 개별화와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창의성과 종합적인 사고를 배양하는데도 큰 몫을 할 수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 사이버통일교육센터,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각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북한네트워크 코너, 통계청, 통일교육협의회 등이 제공하는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은 현실적이며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정보원이 되고 있다.

다. 재량활동을 통한 수업모형

재량활동 시간은 범교과 학습의 형태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통일교육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업모형이다.

첫째, 각종 통일교육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보 활용교육을 통하여 통일 애니메이션 감상, 통일게임, 낱말퀴즈, 통일 OX 게임을 실시하여 사이버세대인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교육 방송에서 매주 방송되고 있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북한의 실생활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며, 시청 후에 느낀 점을 시청 소감으로 쓰게 한다.

셋째,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 관련기관이나 장소 견학활동 즉, 을지 전망대나 통일 전망대, 땅굴 견학이 활발하게 실천될 수 있게끔 한다.

넷째, 군부대나 경찰서 등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통일교육에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 관련 각종 행사가 꾸준히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어 각종 문예행사 및 체험행사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Ⅲ. 통일교육 교수-학습과정안 사례

- 문화이해지 활용을 통한 통일교육 교수-학습모형 -

1. 통일교육에서의 문화이해지 교육의 필요성

다른 문화와 접할 때, 사람들은 흔히 어려움을 느낀다. 갑자기 자신의 문화에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하던 행동이나 태도들이 쓸모없어 지고, 적응이 잘된 사람의 익숙하던 행동들이 무례한 행동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보람 있고 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어느 시점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화간 접촉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누구든지, 문화 간 접촉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인식하기만 한다면, 훈련으로 어려움을 넘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 문화에서는 적절하고 바람직한 행동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부적절하고, 무식하고, 무례하고, 틀린 행동으로 보이는 일은 매우 흔히 일어난다. 자신이 익숙한 것과 다른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대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게 되어 편견이 생기고,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 상호작용하기를 거부하여 차별까지도 하게 된다. 이러한 편견, 고정관념, 차별 현상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타문화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생긴다. 갑자기 적응할 것이 너무 많은 '문화충격'의 상태에서 좌절감이 생기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물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의 문화접변 상황에 휩쓸리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준비와 훈련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심리적 화합의 방법론으로서의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는 귀인훈련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문화이해지를 통하여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배운다. 즉, 타문화의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가 행동원인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를 미리 훈련을 해보는 일종의 인지적 경험훈련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이해지는 타 문화에 가서 살 예정이거나, 타문화의 사람들과 많이 만날 예정인 사람들을 준비시켜주는 프로그램이면서 또한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서로 다른 하위문화를 지닌 집단들간의 상호작용에도 적용된다. 흑인과 백인이 통합된 학교에 다니거나 이민자들이 많이 일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화합을 위한 경험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민주사회의 원리에도 확대 적용시킬 수가 있다. 같은 집단 내에서도 원만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용,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 또한 지나친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현상은 더욱 많은 그리고 넓은 이해와 상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화지 이해교육은 통일교육에서의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분단을 극복하고 심리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 상황 아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도처에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오해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 교류의 목표는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나가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남북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와 같이 가치관과 성격에서의 차이와 더불어 언어습관의 차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생활 관습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서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수도 없이 부딪칠 것이다. 남한으로 온 새터민들을 심층 면접한 한 연구에서는 귀순자들이 남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는 적응상의 문제점 중에서 남한 사람의 개인주의에 대한 갈등이 매우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상대방이 나와 다를 때 그를 나의 잣대로 바로 재어 오해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화합의 첫걸음이 된다. 다름을 인정한 후에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의 사회화 과정, 그 개인과 문화의 역사를 알아서 이를 배경으로 그를 이해한다면, 설불리 변화시키려 하거나 비판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상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

2. 문화이해지의 제작 과정

문화이해지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각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약 100개정도 선정해 놓는다. 그럼으로써 각각의 상황마다 상대방의 행동이유를 다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것이다. 문화이해지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문화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 100개 정도를 선정한다.

둘째, 갈등상황 하나하나를 이야기 형식으로 묘사한다.

셋째,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이유가 무엇인가를 맞추어 보는 서너 개의 보기를 선택지 형식으로 만든다.

넷째, 정답을 선택하고, 각 보기가 왜 맞거나 틀리는지를 문화적 배경과 함께 설명해 주는 해설을 작성한다.

다섯째, 작성된 문화이해지를 타당화 과정을 거쳐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책자로 제작한다.

한 실례로 남북한간 문화이해지의 제작사례를 들어보면,

- ① 갈등상황의 수집 : 남한과 북한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수집한다.
- ② 사례의 작성 : 문화이해지의 형식은 각각의 사례마다 상황묘사 보기 및 해설을 필요로 한다. 선정된 갈등상황을 기초로 하여 각 상황마다 사례를 작성한다. 남북한 간의 문화이해지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상황

- 남북한 사람이 만난 상황을 전제로 한다.
- 서로 만나거나 왕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북한사람의 행동을 남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성한다.
- 상황묘사가 현실적이고 자세하고 가능한 한 재미있게 만들되 직접관련이 없는 내용은 뺀다.
- 보기에서 오답을 고를 수 있는 약간의 근거를 준다.

㉒ 보기

- 4지 선다형으로 하고, 각각의 길이는 2줄 정도로 한다.
- 완전한 문장으로 맞는다.('때문에'등으로 하지 않는다).
- 정답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오답에는 주로 남한사람이 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 한다.
- 상황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㉓ 해설

- 정답, 오답, 해설이 모두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 해설이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가능한 자세하게)
-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인상을 주면 안 된다.
- 해설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면 좋다고 넣어도 좋다.

③ 작성된 사례의 정당화 :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1차로 작성된 사례들은 타당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이해지의 작성과정에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나 북한의 실제상황과 맞는지, 그리고 정답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치는 것이 좋다.

3. 문화이해지 활용 통일교육 수업모형

문화이해지를 활용한 심리학적 수업은 남북한이 분단을 극복하고 심리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나가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새롭게 함께 추구해야 하는 삶의 가치와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질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문화이해지 활용 통일교육 교수-학습과정안 ◆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유의점
도입(5분)	1. 문화 이해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다. • 다음에 우리가 풀어보고자 하는 『문화이해지』는 앞으로 남북의 교류가 자유롭고, 왕래가 막 시작되는 시기, 즉 남북이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 정답은 꼭 하나만은 아닙니다. 답이 없을 수도,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이해지』의 상황 시점을 이해한다. - 프리젠테이션

전개(30분)	1. 이야기 사례상황을 들려주거나 보여준다. • 모둠별(옆의 학생)로 토의하여 답을 찾아보도록 하고 모둠별로 답을 듣는다.(2~3모둠) • 답이 없을 경우, 보기를 준 후 다시 토의하여 답을 발표하도록 한다. (2~3모둠)	• VTR
정리(10분)	1. 소감나누기 - 위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이나 느낀 점은? • 남북의 오랜 분단의 결과,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생활관습의 차이, 언어의 차이 등에 의한 오해와 갈등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 서로 다른 문화적 양상을 낮추어 보거나, 우습게보아 넘기려는 태도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2. 과제 및 다음 시간 수업 예고	• 경청하고, 과제 수행을 위하여 모둠별로 협의한다.

* 학교급에 따라 수업시간의 전개과정을 융통성 있게 진행 할 수 있음.

◆ 학습지 ◆

한강대에 다니는 진수는 친구와 함께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북한 땅으로의 여행이 처음이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길을 떠났다. 관광지로 개발이 잘 되어 많은 사람이 찾는 금강산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신나는 구경을 다녔다. 그러던 중 차가 별로 다니지 않고 인적도 드문 산길까지 들어갔다가 그만 차가 고장 나 버렸다. 할 수 없이 걸어서 가까스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까지 와서 표지판 밑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로 저쪽에서 오던 승용차가 멎더니 웬 남자가 타라는 시늉을 했다. 북한에서는 버스가 다니는 길에서는 차를 태워주는 일이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진수와 친구는 난처하고 겁도 나서 버스가 오면 타고 갈 테니 그냥 가라며 계속 거절을 했다. 그러자 그 북한 남자는 왜 안 타냐며 서운하고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그 북한 남자는 왜 괜찮다는데도 자꾸 그들을 태우려 했을까?

출처 : 정진경, 『탈 분단시대를 열며』, “남북한간 문화이해지”, 2000

《보기》

1.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차를 태워주는데 대해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었다.
2. 잘 사는 북한에서 온 관광객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려한 행동이다. 북한 사람들이 흔히들 북한은 가난하다고 알고 있는 것을 고쳐주고 친절하다는 것도 알릴 겸 차를 태워주려 한 것이다.
3. 북한에서는 워낙 차에 자리가 비면 어느 도로에서건 사람을 잘 태워준다. 그들은 일터로 혹은 집으로 가는 길에 흔히들 합석을 한다.
4. 그곳은 버스노선이 폐지된 곳이라, 이를 알고 있는 북한 사람이 친절을 베푼 것이다.

정답 : 2 또는 3)

《해설》

북한사람들은 사회주의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다. 더욱이 북한에서 승용차를 몰고 다닐 정도라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돈을

위해서 세워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그곳에 버스 표지판이 있다면 버스는 틀림없이 올 것이다. 북한사회는 공공시설과 기간산업을 중요시하기 때 버스노선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매우 강한 것은 분명하다. 그들의 자존심은 남한 사람들이 흔히 그런 것처럼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데 대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자주적인 사회를 일구어 간다는 자존심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복장으로 미루어 보아 남한에서 온 학생들이 분명한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자존심 반, 호의 반으로 세워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흔히들 합석을 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으니까 세워 주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나'보다는 '우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태우는 것은 특별히 대단한 친절로 여기지 않고 공유재산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남한의 개인주의 문화 때문이다.

4. 문화이해지 활용을 통한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

문화이해지를 활용한 수업에서 중요한 효과는 여러 가지의 선정된 상황에 대하여 정답을 알게 되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즉각적인 감정에 따른 선부른 판단이 틀리기 쉬움을 인식하는 것이다. 훈련을 통하여 사람들은 선입견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그 사람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조심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조금씩 습관화 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이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으로 일반화된다면 화합을 위한 주춧돌의 구실을 할 것이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된다. 모두가 '다름', '같음' 이 '다름' 을 통해 표현될 수 있고 '다름' 속에 '같음' 이 있다는 것을 알 때 타(他)언어 이해가 가능하다.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 상황 아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도처에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오해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 교류의 목표는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나가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남북의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가치관과 성격에서의 차이와 더불어 언어습관의 차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생활 관습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서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수도 없이 부딪칠 것이다. 남한으로 온 귀순자들을 심층 면접한 연구에서는 귀순자들이 남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는 적응상의 문제점 중에서 남한 사람의 개인주의에 대한 갈등이 매우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상대방이 나와 다를 때 그를 나의 잣대로 얼른 재어 오해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화합의 첫걸음이 된다. 다름을 인정한 후에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의 사회화 과정, 그 개인과 문화의 역사를 알아서 이를 배경으로 그를 이해한다면, 선불리 변화시키려 하거나 비판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상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

문화이해지가 담고 있는 정보는 타문화에 가서 실수를 덜 할 수 있게 지식을 넓혀준다. 그 중에도 중요한 지식은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상대방의 관점을 알게 되면 그들과 같이 이해할 수 있고, 오해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참고할 때, 훈련의 자료는 불안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들을 집어내고, 그 불안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IV. 결 론

우리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볼 때, 통일은 특정시점에서 완결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질서는 우리의 민족문화 전통에 근거를 두면서, 국제사회의 변화추세에 부응하는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보다 실용적으로 볼 때, 통일문제는 최소한도의 국민적 통합을 바탕으로 하며,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통합은 통일교육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통일교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어 알고 싶고 궁금해 하는 것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북한 실제생활 비교를 통한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학생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하며 그 속에서 같은 한 민족임을 자각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리고 총론적인 통일교육은 이제 지향되어야만 한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는 화해협력의

시대에 당연하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교육은 통일 및 교육환경의 변화와 세대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과거 지향적이거나 당장의 통일을 바라는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설문조사와 통일교육 시범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관심은 주로 북한 또래들과 주민생활에 집중됐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모두 일곱 차례 개정됐으며, 그때마다 통일교육 내용도 변해왔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도 분단의 원인, 통일의 당위성, 북한 실상, 통일정책, 통일 미래상이라는 도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느낌이다. 통일 환경은 급변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국경 없는 사이버 시대를 살아가는 사이버세대이다. 따라서 사이버세대의 특성에 맞는 사이버교육의 통일교육 방법은 가장 효과적이며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통일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말 중에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말이다. 시루 속 콩나물에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가서 보이지 않는 듯 보이지만 꾸준히 자란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아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교육에 대한 관심, 지원, 노력은 어느 결엔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

< 참고문헌 >

- 김영일, “제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 지도방안”(2000년 중등교원 통일연수 교재), 2000.
- 김학준,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 세미나(2000. 6.21)
- 박찬석, “통일교육, 갈등과 분단을 깨뜨리는 평화의 길 찾기”, 2003.
- _____, “서울초중등 교사의 통일교육 실태와 제언”(통일교육연구 제4권 제1호), 2003.
- 서재진 외,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2004.
- 오기성, 제7차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6.
- _____,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방향”(2000년 중등교원 통일 교육연수자료), 2000.
- 이향규, “통일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자연스런 현상”(통일한국, 2001년 6월호)
- 정용민, “해외 평화교육의 한반도 통일교육에의 적용가능성(1-미국의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2002.
- 정진경, “더불어 사는 연습 문화이해지”(민족화해평화통일교육), 2001.
- _____, “남북한간 문화이해지”탈 분단시대를 열며), 2000.
- 진효관, “소프트해진 통일교육, 그 쟁점과 위상(북한연구의 성찰)”, 2003.
- 차우규, 중등교원 통일교육 직무연수 교재, 2000.
- 최현호, “남북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방향연구(배재대사회과학연구 제17집)”, 1998.
- 통일교육원, 2010 통일교육지침서, 2010.
- _____, 통일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2004.



고등학교 통일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

김 학 추
서대전고등학교 수석교사



고등학교 통일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

- 도덕·윤리교과를 중심으로 -

김 학 추(서대전고등학교 수석교사)

I. 서 언
II.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
III.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IV. 결 어

I. 서 언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통합을 강조하는 역사적 대 전환기에 살고 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최대과제는 민족통일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북이 반세기 이상 분단된 채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각기 다른 이념과 문화체제로 오면서 쌓아온 적대감을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키워나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개인주의, 다양성, 이익집단, 정보사회, 무한경쟁 사회,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주의와 이합집산, 무역전쟁, 국지전의 발생 등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 북한주민의 기아, 질병, 국경지역에서의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새터민 동포문제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수능 위주의 지식 교육에만 치중한 나머지 도덕교과 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도덕교과 안에서도 통일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으며, 실제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수업시수의 부족, 자료의 부실, 사회적 관심의 저하 등으로 인해 통일교육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본 워크숍 주제발표에 바탕을 두고 미래 통일시대의 주인공이 될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1) 고등학교 도덕·윤리교과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2) 수업현장에서 야기되는 통일교육의 일반적 문제점을 열거한 다음 3) 통일교육 수업현장에서 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II. 고등학교 통일교육 현황

현재 고등학교 도덕·윤리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은 1학년 공통 교육과정에 속하는 도덕교과와 선택교과인 윤리와 사상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의 내용은 '현대사회의 도덕문제'와 '통일문제와 통일한국의 모습'이라는 두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의 비중으로 볼 때는 한 학기에 한 단원씩 다루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는 통일교육이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 순서에 따를 때 고1 도덕과 2학기 수업은 통일교육만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고1 도덕교과에서 한 학기 동안 주력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도덕교사에게는 통일교육에 대한 강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1. 고등학교 도덕 교과의 통일교육 현황

가. 통일교육의 목적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적은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장기간의 종합적인 교육계획 하에서 통일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력을 원리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배양하여, 통일을 성취하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장차 통일에 대하여 논의와 의사결정에 책임 있는 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나.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현행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도덕을 포함한 10개의 교과가 있다. 도덕과는 2단위로 학기당 1시간씩 이수하도록 배정되었다. 이 단원은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통일한국의 모습, 인물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II단원의 구성을 소주제들이 드러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 단원의 구성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주 제 명	비고	
II. 민족 통일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	1.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1) 민족분단의 과정	① 분단의 현실 ② 분단의 원인과 과정 ③ 분단의 고착화 과정		
		(2)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④ 남북한의 언어 ⑤ 남북한의 생활문화 ⑥ 남북한의 규범 및 가치		
		(3) 민족 분단의 극복 방향	⑦ 분단 극복의 필요성 ⑧ 분단 극복의 장애 요인 ⑨ 분단 극복의 기본 방향		
	2.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1)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⑩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⑪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한반도 정책 ⑫ 남북한의 통일 환경 조성과의 남북 관계		
		(2)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⑬ 우리의 통일 정책 ⑭ 북한의 통일 정책 ⑮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3)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⑯ 통일의 의지와 통일 대비 자세 ⑰ 평화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⑱ 통일 실현을 위해 고등학생이 할 일		
	3. 민족 공동체의 변명과 통일한국 모습	(1)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	⑲ 한민족 공동체의 의미와 세계화의 도전 ⑳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 ㉑ 민족 공동체의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		
		(2) 통일 한국의 미래상	㉒ 통일 한국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㉓ 통일 한국이 나아갈 방향 ㉔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상		
		(3)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㉕ 21세기의 국제 사회 ㉖ 통일 한국의 위상과 역할 ㉗ 미래의 새 한국인이 되기 위한 노력		
	인물학습			㉘ 연개소문 ㉙ 나폴레옹	

이 단원의 전개는 분단의 문제, 통일을 위한 노력과 정책, 통일 후의 비전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논리에 맞는 적절한 구성이며 통일의지를 함양하려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교과서 편찬자의 통일교육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드러내는 구성이기도 하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분단과 통일의 여러 과정과 문제들을 인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었으며 정서적으로 통일의지를 배양할 수 있게 되었다.

2.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가. 통일교육 목표의 문제점

통일교육의 목표가 주로 가치관, 태도 등의 정의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통일교육이 도덕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덕과 에서는 북한에 대한 감정, 통일에 대한 의지와 같이 정서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도덕 교육론적 접근은 태도와 의지 등을 강조하는 반면에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분석, 판단 등의 인지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 통일교육의 결과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상, 이념, 체제, 통일 방법 등 통일문제 전문가들도 명쾌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 문제 자체를 머리 아프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렸으며 남북의 차이를 부각시켜 통일이 힘들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와 북한 주민들을 외국인보다 더 먼 이방인으로 여기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기존 통일교육은 북한주민의 문화와 생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북한동포를 우리와 같은 민족의 일원이며 동포로서 이해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다. 통일이 현실화되었을 때 정치적 통합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심리적 차원의 인간통합에 대한 고려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 이를 촉진시키며 통일 이후의 민족통합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국가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열망하고, 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지금까지 이러한 국가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여 왔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¹⁾

첫째, 기존의 통일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지도자로의 역할보다 추종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했다는 지적이다. 강의식 교육과 시청각 교육을 중심으

1) 차우규, “학교통일교육의 효율적 지도 방안”

로 학생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감정에의 호소와 설득 등에 주로 의존하였다는 비판이다.

둘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남북한 간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이라는 의미에서의 공동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셋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그 내용을 상의하달적인 방식으로 전하는 비 전문적이고 타율적인 활동이었다는 비판이다. 즉,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이 주로 교사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발달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법 및 기법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직접 개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권한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제약과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만 너무 치중해 왔다는 비판이다.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이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과 기법 및 자료의 개발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매우 제한적인 자료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다. 즉, 교사나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자료를 구입하거나 열람하고자 할 때 이것이 극히 제한되어, 정부에서 만들어진 2차 자료 외에 1차 자료를 구해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와 학생들은 정부에서 주어지는 북한 및 통일교육 자료에 대해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고 통일교육 그 자체에 대한 그릇된 편견까지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 통일교육 내용상의 문제점

첫째, 통일문제를 지나치게 남북한간의 문제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 통일이 가지는 국제적 의미나 주변 국제환경의 변화가 우리 통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국제 정세 변화가 한반도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주변정세를 활용한 통일 방안 모색도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방안을 무력을 배제한 평화통일 원칙 하에서 점진적 방법의 필요성을 교과서 내용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다. 당위적 기술이지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 체제의 붕괴에 따른 급속한 흡수통일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이 반드시 논리적 이유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점진적인 방법이지만 갑작스럽게 통일이 다가올 수도 있으므로, 그것에 대비하는 내용도 필요하다.

셋째, 교과서에 통일국가의 모습은 민주·자유·복지가 보장되는 국가라는 점을 여러 항목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국가 형성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지킬 힘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안보분야의 내용보완이 되어야 한다. 안보부분의 강조가 통일인식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체제가 위협 당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 후 자유·평화·복지가 보장되는 국가를 전제로 하지만, 그 과정에 고통분담이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에서 보듯이 한반도의 통일도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또 정치·사회적 통합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통일 비용 부담금만을 강조하게 되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분단으로 빚어지고 있는 분단비용의 개념과 대비해 교육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통일 후 북한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한 민족이고 동포라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할 상황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러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지나친 우월의식이 앞서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여섯째,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관련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에 관련된 교과서는 이전의 반공교육이나 통일·안보교육에서 야기되었던 대 북한 인식과 통일의식에서 분명하게 변화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상에 나온 이전의 감정적이고 주의주장을 내세웠던 여러 자료, 서술, 분석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통해 통일 지향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개선, 인식의 변화에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북한주민과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Ⅲ.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1. 통일교육 목표의 재설정

-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주는 교육
- 세계화에 부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
-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
- 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남북한 상호 이해를 통한 화해의식을 형성하는 교육
- 평화정착을 통한 점진적 통일의 중요성 교육
- 통일 준비를 위한 국가역량 증대 및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
-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된 시각 교육

2. 통일교육 내용의 선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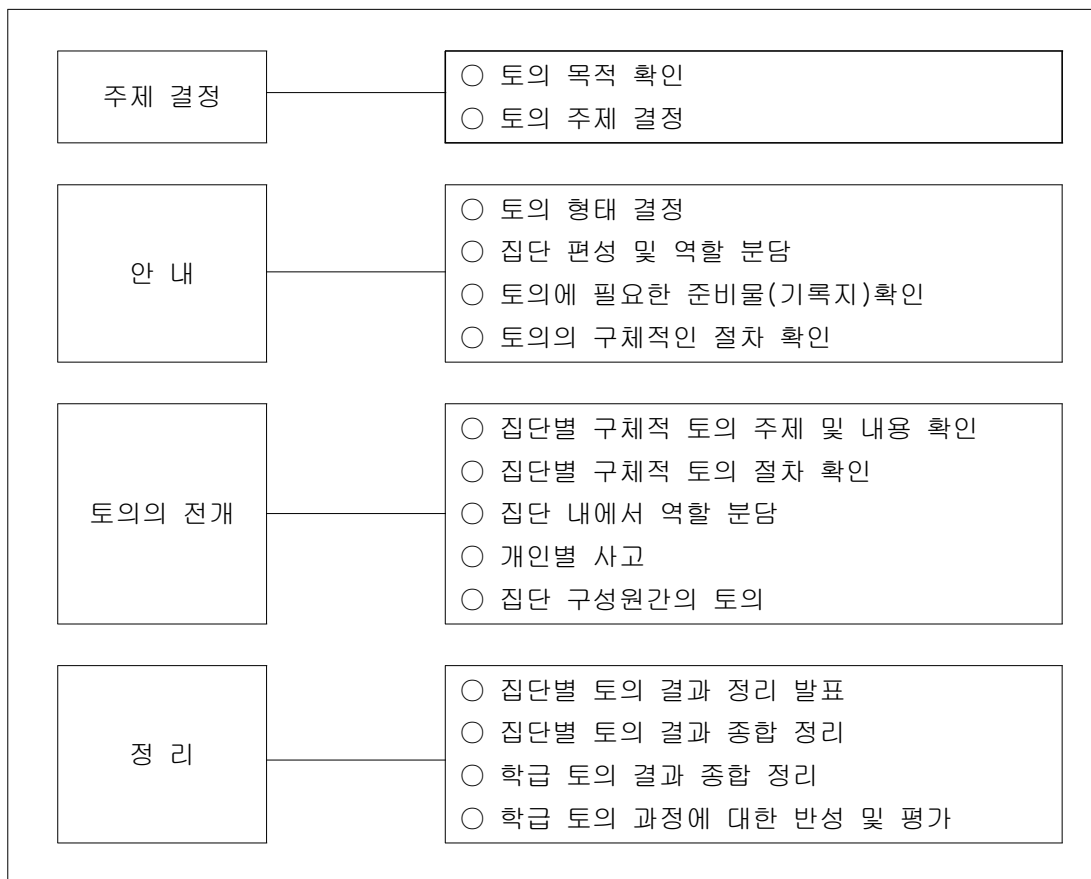
- 생활문화를 소재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 민족공동체 교육
- 평화에 기초한 점진적·단계적 통일교육
- 통일 과정에서 겪게 될 많은 어려움을 사전에 인지시켜야 한다.
-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 정도를 축소하고 인식의 혼란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년의 통일의식 고취
- 통일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관심과 열의

3.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통일교육 수업방법의 다양화

가. 토의 학습

- 1) 수업절차

토의수업은 통일교육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고 있는 수업모형으로, 어떤 정해진 한 가지 절차만으로 한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토의식 수업이란 대화식 수업, 토론식 수업, 논의식 수업 등으로 불리는 일단의 모든 수업과정 곧, 교사와 학생간의 일문일답식 수업, 집단 토의 수업, 문제에 대한 판단과 대안 찾기 수업, 찬반 되는 문제에 대한 대립 토의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의미이다.



토의수업을 전개함에 있어 학습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토의를 통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집단적인 토의를 통하여 수업의 주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주제에 알맞은 학습 자료를 학생들이 스스로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탐독한 다음 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북한의 현실 문제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전개할 수도 있다. 통일교육에 적용되는 토의 수업은 일반적으로 문제의 인식 → 문제의 탐구 → 문제의 토의 → 토의의 평가 및 신념화의 과정으로 진행된다.2)

2) 토의 수업모형의 적용 시 유의점

- 토의 주제는 전체 학생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나누어 제시해야 한다.
- 토의수업은 가장 쉽고 재미있으며, 최근 관심 있는 문제로 시작한다.
- 토의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는 토의 주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전체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와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 토의 진행 중에 교사의 수시 적절한 지도가 뒤따라야 내실 있는 토의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토의에 참여하는 학생 전원에게 공평한 발언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교사가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나. 놀이학습 : 남북 단일팀 구성해 보기

1) 제작 과정

가) 조별 구성원들끼리 주제를 나눈다.

- 남북단일팀 구성의 장점, 단일팀 구성의 역사, 가상 월드컵 단일팀 구성, 단일팀 선수 유니폼 만들기, 단일 응원가 만들기
- 각 모둠 구성원들이 자료를 찾는다.
- 각 자료를 모아 하나의 표,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한다.
- 완성된 작품을 발표한다.

2)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 갖는 특징 및 장점

- 남북단일팀 구성은 남북한 국민들의 관심과 교류의 이념을 창출하기 쉽다.
- 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대중성을 지니고 있어, 선수 간의 교류 뿐만 아니라 '보는 스포츠'로 국민전체가 함께 즐기며 쉽게 다가갈 수 있다.
- 체제와 이념에 관계없이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2) 박종태, “통일안보교육의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 남북 단일팀 구성의 성공은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미술, 음악 등)에 확대될 수 있다.
- 민족동질성 회복에 활력을 가져오고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정서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민족화합을 이루어 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남북의 우수 선수들로 구성된 단일팀은 세계무대에서 막강한 한국 스포츠의 저력을 뽐낼 수 있을 것이다.

3) 2010년 월드컵 가상 남북 단일팀 선수 구성



IV. 결 어

고등학생 단계에서 통일교육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 안전, 행복 등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국가안보가 선결될 때만 가능하다는 냉엄한 국제사회와 남북관계의 역사적 사실을 주지해한 한다고 본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자칫 입시 문화로 인하여 국가안보가 전제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류역사의 냉엄한 진리는 국가안보와 개인의 천부적 생존권 보장이 현실적으로 뒷받침 된 후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는 통일문화를 창조해야 하며, 남북한이 단계적인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표출될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는 체제통합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겠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고등학생의 통일교육은 남북한 통일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선택과 비판을 위한 분석능력과 의사결정 기능을 숙달시키며, 통일국가를 성취하려는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을 말한다. 동시에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여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

참 고 자 료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자료방’ 메뉴) 등재 통일교육자료 목록(www.uniedu.go.kr)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통일문제이해	2009.4	통일방안, 대북정책, 남북관계, 국제질서, 통일환경	교사용	전 차시 공통
북한이해	2009.4	북한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 분야별 실상	교사용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2009.2	통일정책, 남북관계, 북한실상 관련 주요 사항	교사용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2007.1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방안과 남북관계, 분단국 사례 등	교사용	
분단의 20세기 통일의 21세기 [동영상, 28분]	2005.3	한반도 분단과정, 남북관계 발전현황, 통일의 비전 등을 문답식으로 설명	공통	
한라에서 백두까지(플래시게임)	2008.12	문제를 풀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기	초/중	
새 The bird [동영상, 20분]	2006.5	남북의 조류학자 원홍구·원병오 부자의 사연을 각색(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중	민족분단의 과정
가자미의 눈물 [동영상, 14분]	2007.7	이산가족 할아버지의 고통을 통해 나이 어린 손녀가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됨(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등	
가자미의 눈물 [동영상, 14분]	2007.7	가자미의 눈물 자막·수화 삽입본(청각장애인용)	초등	
가자미의 눈물(영어판·일어판) [동영상, 14분]	2008.12	가자미의 눈물 영어·일어 자막 삽입본(재외동포용)	초등	
북한의 교육제도 [동영상, 22분]	2002.11	북한의 학제, 교과목, 학교생활 등	공통	민족분단과 남북 사회문화 비교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3	북한의 교육정책, 학제, 김정일시대 교육의 특성	교사용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동영상, 21분]	2008.11	북한 학생의 일과, 교육과정, 조직생활, 방과 후 생활	공통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동영상, 20분]	2008.11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조직생활 등 하루일과	공통	
이슬이의 북한 방문기 [동영상, 23분]	2005.6	이슬이가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겪는 이야기(아동·청소년용 플래시 애니메이션)	초등	
게임 소녀와 평양 소년(만화)	2007.12	남북의 소년소녀가 게임을 통해 만나고 친해지면서 통일을 염원하게 됨(아동·청소년용 만화)	초/중	
북한의 선거제도 [동영상, 31분]	2004.2	제11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과정을 통해 본 북한의 선거제도	공통	
남북문화이해지 [동영상, 80분]	2002.12	문화이해지 기법을 이용한 통일교육 영상자료	공통	
북한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동영상, 33분]	2003.11	조선중앙TV 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상	공통	
북한 가요에 나타난 여성상 [동영상, 23분]	2002.11	북한 가요 7편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상, 북한 여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 및 실제 생활모습	공통	
북한만화영화의 이해 [동영상, 47분]	2004.2	북한 만화의 주제별 유형분류, 수업자료 활용경험 등	공통	
북한주민의 결혼과 가정생활 [동영상, 36분]	2004.2	북한 주민의 연애, 결혼, 육아, 가정생활 및 경제난 이후 변화	공통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	2003.12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말 인식현황, 해방전후 한반도 언어생활환경, 로동신문 <우리말다듬기>상토론> 분석	교사용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2004.5	사회주의농업의 이론, 제도, 개혁사례, 북한의 농업 시스템 및 개혁의 조건과 과제 등	교사용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2	북한의 식량난, 주식, 먹거리 문화	교사용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9	북한 역사관의 특징,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남북교류, 통일역사 교육의 과제	교사용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하였나	2005.9	남북 예술의 특징, 분단 후 변화, 남북 교류현황	교사용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2005.1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사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정책 현황과 성과	교사용	
북한의 에너지 사정, 어제와 오늘	2007.2	북한의 에너지정책, 공급구조, 수급현황	교사용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2007.1	북중 변경무역, 북한의 시장	교사용	민족분단과 남북 사회문화 비교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9	북한의 IT중시정책, 정보화 현황 및 실태, 정보통신부문 남북교류협력	교사용	
북한과학기술의 이해	2007.1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체제, 계획, 수준, 특징, 남북협력	교사용	
북한의 IT 현황과 전망 [동영상, 23분]	2002.11	북한의 정보산업 육성배경 및 현황	교사용	
남북한 IT 용어 비교	2005.9	북한의 IT 산업현황, 남북한 IT 용어 비교	교사용	
북한의 의료실태	2007.2	북한의 고려의학체제, 의료교육,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실태	교사용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007.12	북한의 관광환경, 정책, 기구, 금강산·개성·백두산 관광	교사용	
북한의 체육 실태	2008.7	북한의 체육정책, 체육교육 및 선수양성, 조직, 시설, 대회,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교사용	
북한의 문화재 실태	2008.12	북한의 문화재 정책·관리실태·현황, 남북교류 방안	교사용	
남북한 물류망 구축: 그 실상과 과제	2007.2	북한의 주요 운송수단,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 현황, 과제와 전망	교사용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2007.1	북한의 환경관, 정책, 실태, 남북교류현황	교사용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4	북한법에 나타난 북한체제 및 사회의 변화상,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교사용	
북한의 법제 정비 동향과 특징	2007.12	북한의 법체계, 규범과 현실, 입법동향, 법제정비 평가와 전망	교사용	
북한의 대남전략	2009.12	북한의 대남전략 기초와 노선, 전개양상, 향후전망	교사용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2002.12	통일독일 주민 간 심리적 갈등 현실을 통해 제도적 통일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통일의 시사점 도출	교사용	민족분단 극복 방향
갈등을 넘어 통일로	2004.9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독일통일 전후 갈등 및 통합 사례, 남북통합과정과 공동체의식 연구	교사용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3	유럽통합 과정, EU 조직체계,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교사용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09.12	독일의 통일과정과 분야별 통합현황	교사용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5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한반도와 국제정치, 주요쟁점과 전략방향	교사용	우리의 대내외 적 통일환경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동영상, 9분]	2008.11	상생공영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중점 추진과제 등	교사용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상생공영 사행시 모음집	2008.12	「상생공영 사행시 짓기」 공모전 모음집 수상작 및 상생공영정책 10문 10답	중/고	
해미의 행복통일한국 [동영상, 11분]	2007.12	해미라는 고등학생이 꿈을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상상하게 됨(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중/고	통일한국의 미래상
해미의 행복통일한국 [동영상, 11분]	2008.6	해미의 행복통일한국 수화·자막 삽입본(청각장애인용)	중/고	
화해·협력시대의 여성 통일교육	2002.6	여성 통일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방법	교사용	기 타
통일·남북관계 사전	2004.7	통일, 남북관계 관련 주요용어 및 개념	교사용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2005.7	각종 정치경제학 이론으로 남북관계 분석	교사용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12	대북협상에 대한 관점, 특수성과 어려움, 북한의 협상행태, 남북협상 문화 등	교사용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6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법해석학적/법사회학적 접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인식전환의 필요요소	교사용	
남북 인적교류 현황과 실상	2007.2	남북 인적교류 정책, 현황, 의의	교사용	
2008 통일교육 웹진(Unizine)	2008.12	2008년도 월간 통일교육 웹진(Unizine) 종합본	교사용	